원류 源流

이륙한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아름다운 파른 하늘이 펼쳐지고, 구름바다는 눈부신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야마모토 신이치를 단장으로 하는 창가학회 인도방문단 일행은 1979년 2월 3일 오전 11시, 규슈 동지들의 배웅을 받으며 가고시마공항을 출발해 첫 방문지인 홍콩으로 떠났다.

신이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옆에 앉은 아내 미네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흐린 날에는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태양이 보이지 않소. 그리고 며칠이고 비나 눈이 내리고 먹구름이 뒤덮여 있으면 언제까지나 이런 날만 이어질 것 같아 마음까지 어두워지기 십상이지. 하지만 구름 위에는 언제나 눈부시게

태양이 빛나고 있소. 경애를 높여 구름을 뚫고 나아간다면 인생은 늘 태양과 함께 있다오. 또 비록 폭풍우 속을 뚫고 나아가는 듯한 하루하루일지라도, 마음에 태양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심이오.

나는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태양을 볼 때마다, 도다 선생님이 읊으신 '구름 사이로 / 달(月)을 보려 하는 / 아시아의 민중에게 / 해(日)를 비추리라'라는 시가 생각난다오.

‘아시아의 민중은 낮게 깔린 구름 아래에서 달빛을 보고 싶어 한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갈앙하고 있다.’ ― 선생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의 광원인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佛法), 다시 말해 태양을 비추겠다고 결의하셨소.

이 시를 볼 때면 동양광포를 향한 선생님의 뜨거운 정열과 신념과 자애가 느껴져, 마음을 단단히 다잡게 된다오."

미네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 띤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인도방문으로 도다 선생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실현하고 싶군요."

"맞소. 이제 인도에도 광포를 위해 힘쓰는 동지가 탄생했으니, 선생님이 기뻐하실 거요."

은사를 생각하자, 두 사람의 대화는 한층 열기를 띠었다. 마음이 불타올랐다. 용기가 솟았다.

신이치는 도다를 떠올리면서, 본격적인 세계광포를 위해

더욱더 반석같은 토대를 만들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탄 제트기는 안정비행을 계속하면서 타이완 상공을 지나 홍콩에 접근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비행기를 훌륭하게 조종해준 기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저서에 시를 적어 선물했다.

“행복을 / 기원하노라 / 비행기”

그 옆에 "신세가 많았습니다. 귀형(貴兄)의 건강과 활약을 기원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가고시마공항에서 출발하고 세시간쯤 지나 현지시간으로 오후 1시 20분, 일행이 탄 탑승기가 홍콩의 카이탁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홍콩중문대학교 중국문화연구소의 천징허(陳荊和) 소장을 비롯해 홍콩SGI 멤버가 마중 나와 주었다.

신이치의 홍콩방문은 1974년 이후로 5년 만이다. 때마침 설연휴라 거리에는 새해를 축하하는 '공하신희(恭賀新禧)'라는 글자와 붉은 등이 걸려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신이치는 숙소인 호텔에 도착하자, 바로 주룽탕(카오룽퉁)에 있는 홍콩회관으로 갔다. 오후 3시, 회관에 도착한 신이치는 회관에 있던 30명 정도 되는 멤버와 뜰에서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멤버들은 홍콩중문대학교에 유학을 온 일본인 학생과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럼 함께 근행합시다."라고 말하고 회관 1층 강당으로 가서 근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담을 나눴다.

유학생에게는 "유학 기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또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진지한 창제와 학회활동 그리고 불법연찬에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1주일이나 열흘 만에 어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0년, 20년 신행학(信行學)을 꾸준히 실천하면, 생각지도 못한 행복경애를 열수 있습니다.

신심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행복을 구축해야 불법의 올바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즉(卽) 광포이고, 실증(實證)이 즉 승리입니다"

신이치가 간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멤버 수십명이 신이치가 방문한 사실을 알고 모여 있었다. 이미 일대는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일부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멤버들과 악수를 나눈 뒤, 기념촬영을 했다.

그곳에 부부가 세 아이를 데리고 달려왔다.

신이치가 광둥어로 "네이호우!"(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양팔을 벌려 세 아이를 함께 껴안았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동행한 통역인 저우즈잉(周志英)이 “린 씨 가족인데, 여기 같이 온 넷째 딸이 열한살, 다섯째 딸이 아홉살, 아들은 여섯살입니다.”라고 했다. 린 씨 가족은 신이치가 홍콩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만나고 싶은 마음에, 회관 앞에 있는 공원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신이치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처럼 왔으니 오늘은 공원에서 함께 놉시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이 정한 '국제아동의 해'이니까요."

신이치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이름을 물었다.

‘쉬안광(宣廣)’이라고 했다.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시소를 탔다. 신이치가 한쪽 편에 혼자 타고 반대편에 세 아이가 함께 탔다.

"모두 무겁군요. 자, 갑니다! 영차, 끼이익! 쿵!"

아이들의 얼굴에는 내내 함박웃음이 가득했다.

이번에는 그네를 탔다.

신이치가 쉬안광이 탄 그네를 밀며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모두 대학에

갑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린 가족은 자녀가 여섯인데 아버지는 운전사였고, 어머니는 재봉일을 했다. 사는 집은 30제곱미터(9평)도 안 되는 공영아파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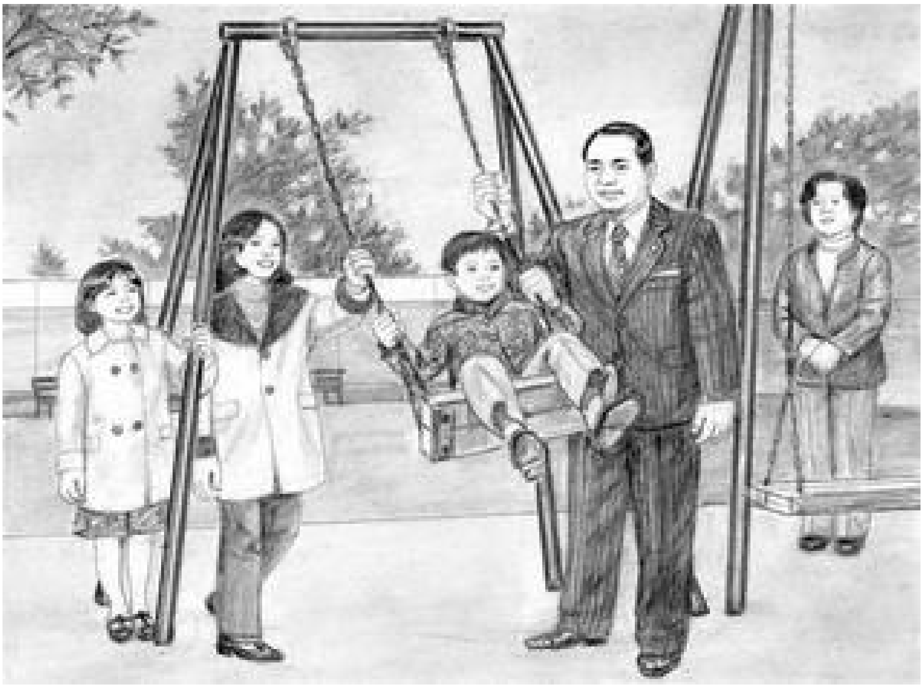
신이치는 아이들을 그네에 태워 놀아준 뒤, 부부를 바라보았다.

"참으로 분투하고 있군요.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는 부모의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 반드시 훌륭하게 자랄 것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수수해도, 각광을 받지 못해도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며 학회활동에 힘쓰면서 필사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서민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가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훌륭한 분입니다.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래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알겠지요. 약속합시다!"

신이치는 린 가족과 굳게 악수를 나누고 "그럼, 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린 부부와 아이들은 이때 들은 신이치의 말을 잊지 않았다. 부부는 신이치가 아이들에게 "대학에 갑시다."라고 한 말을 반드시 지키자고 굳게 맹세했다. 생활이 어려워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여유는 없었지만 열심히 일했다. 어머니는 새벽 1~2시까지 재봉일을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았다.

이윽고 신이치가 격려한 세 아이 중에 두 딸은 대학원까지 진학한다.

또 남동생 쉬안광은 명문 홍콩대학교를 졸업하고 치과의사가 되어 진료소를 연다. 학회 조직에서도 홍콩SGI의 의학부장(의료부장)으로 활약한다.

사람이 맹세를 세우고 도전하면, 자신을 고양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인간만이 맹세를 할 수 있으며, 맹세를 지키기 위해 살아야 참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이치는 홍콩회관 앞 공원에서 린 가족을 격려한 뒤, 오후 6시 반에는 홍콩의 각부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회합 장소는 침사추이에 있는 호텔이었다. 18년 전에 신이치가 동양광포의 첫발을 새길 때 숙소로 썼던 이 호텔에서 모두 함께 저녁을 먹으며 회의했다.

1961년 1월 28일 저녁, 신이치는 홍콩섬에 있는 케네디로드의 어느 건물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했다. 모인 멤버들

은 십0여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대부분 신심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홍콩지구를 결성했다. 그 뒤로 홍콩은 광선유포를 착실히 추진해, 5개 본부로 조직을 확대했다.

신이치는 각부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속에서 18년 전 좌담회에 참석한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다.

“초창기 여러분이 건강하시니 기쁩니다.”

부인부원 한명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18년이라고 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날 참석한 좌담회가 마치 어제 일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환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광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충실과 환희로 인생의 파노라마를 그리는 일입니다.

초창기 역사를 구축한 분들이 복운(福運)에 넘쳐 활기차게 활약하는 모습 자체가 모두의 희망이고, 홍콩창가학회가 승리한 모습입니다.”

“홍콩은 동양 광포의 선구이고, 미래를 밝히는 등대입니다. 그런 홍콩의 광선유포가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결정타는 무엇인가. 바로 ‘신의(信義)’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인간으로서 어디까지나 ‘신의’를 관철해 신뢰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 신뢰 확대가 즉(卽) 광포확대라는 사실을 알

기 바랍니다.

불법(佛法)은 우리 내면 속에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모두 인간에게 달렸습니다. 아무쪼록 유유히 흐르는 대하(大河)와 같은 커다란 경애로 사람들을 포용하기 바랍니다.”

홍콩에 온 지 이틀째가 되는 2월 4일 오후 1시 30분, 주룽의 빅토리아항 근처에 있는 주룽회관을 첫 방문한 신이치는 홍콩광포 18주년을 축하하는 기념근행회에 참석했다.

주룽회관은 상가에 위치한 15층 건물의 5층에 있었다. 근행회에는 각부 대표 250명이 참석했다.

근행한 뒤에는 여자부 인재육성그룹인 ‘명랑그룹’이 그룹가(歌)를 부르고, 남자부 멤버가 ‘광포로 달려라’를 광둥어로 불렀다. 이튿날 5일에 중대한 사명을 안고 인도로 출발하는 신이치 일행을 축하하는 합창이었다.

신이치는 이날 숙명전환(宿命轉換)에 관해 말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예기치 못한 병이나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자신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태를 만나기도 합니다. 거기에 숙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 바로 제목입니다.

어본존에게 창제하여, 자신의 흉중에 있는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는 부처의 위대한 생명을 용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생명력이 넘친다면 어떤 시련에 부딪쳐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숙명의 큰 파도를 유유히 타고넘을 수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이 사도(佐道)에 유배되셨을 때 ‘법화경 때문에 대난을 만났기에 과거세의 죄장을 소멸하고, 숙명을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배의 몸이지만 희열은 한량없도다.’**(어서 1360쪽)라고 말씀하시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대성인의 이러한 경애를 잇는다면 ‘숙명에 우는 인생’에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환희 찬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니치렌불법은 숙명타개, 숙명전환의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도다 조세이의 바람은 아시아 민중의 숙명전환이었다. 신이치는 홍콩 동지가 그 선구이기를 바랐다.

이날 저녁, 신이치는 홍콩본부회에 참석했다. 참석자의 근황이나 의견을 들으며 한사람 한사람을 격려했다.

“광선유포라고 해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먼저 자기자신을 신(信)· 행(行)· 학(學)으로 연마해야 합니다. 가정을 반석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

역에 공헌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착실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승리를 쟁취하는 속에 신심이 있습니다.”

재물을 얻어 느끼는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심으로 쟁취한 행복은 만족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것을 실감하기 바랍니다. 신심을 생애 관철한 사람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간부의 자세를 언급하고 “멤버를 친형제· 자매처럼, 그리고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하기 바랍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신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라고 지도했다.

인도로 출발하는 5일 오후, 신이치는 출발하기 전에 주룽의 침사추이에 있는 고(故) 저우즈강(周志剛) 이사장의 집을 방문했다.

도중에 큰 길을 걷고 있자니 지하철 공사현장 부근에서 동행하던 홍콩 간부가 어느 청년을 발견하고는 신이치에게 소개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데, 마침 점심을 먹으러 지상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청년은 마른 체구에 안색도 좋지 않았다. 지병인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힘들겠군요. 저도 청년시절에 폐병을 앓아서 호흡기질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압니다. 아무튼 몸을 소중히 해서 빨리 건강해져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잘 듣고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은 생명력을 강하게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제목입니다. 건강해지겠다고 정하고 진지하게 창제해야 합니다.

반드시 건강해져야 합니다. 약속합시다!”

온 힘을 다해 격려하고 악수를 나눴다. 왜냐하면 한 순간의 대화가 인생의 전기(轉機)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故) 저우즈강 이사장의 집은 아파트 6층에 있는데, 승강기가 없었다. 신이치는 소카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이번에 홍콩방문에 통역으로 동행한 저우즈강의 큰 아들 저우즈잉의 안내를 받아 계단을 올랐다.

저우즈강은 5년 전인 1974년 11월, 심장병 때문에 예순한 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신이치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랐다. 만년(晩年)의 저우즈강에게는 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무척 힘들었으리라.

집에서는 부인 쉬위전과 장모, 세 딸이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경애하는 야마모토 선생님이 이렇게 와주서서, 남편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

“오늘은 추선근행(追善勤行)을 하러 왔습니다.”

신이치는 벽에 걸린 저우즈강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부인을 바라보았다.

“남편분은 홍콩광포의 길을 개척한 최대 공로자입니다. 자녀들도 훌륭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멋진 일입니다. 남편분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면서 행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남편분이 쌓은 위업은 모두 가족의 복운이 됩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의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주십시오.”

모두 함께 깊은 기원을 담아 추선근행을 했다. 그러고 나서 가족의 근황에 귀를 기울인 신이치는 더욱더 복덕이 넘치고 번영하기를 염원하며 색지(色紙)에 휘호를 선사했다.

“모자(母子)를/ 제불(諸佛)이 지키노라/ 황금의 집”

저우즈잉이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일본인이고, 저는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희 한사람 한사람을 성심성의를 다해 지켜주십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선생님에게서 배웠습니다.”

평화라고 해도 한 사람과의 신의(信義)에서 시작된다.

인도 델리는 하늘 가득 별들이 반짝이고 상현(上弦)을 조금 지난 은빛 달이 미소를 짓듯이 땅 위로 빛을 던졌다.

2월 5일 저녁에 홍콩 카이탁공항을 출발한 야마모토 신이

치 일행이 팔람공항(훗날 인디라간디국제공항)에 도착한 때는 현지시간으로 6일 밤 0시 15분이었다.

트랩을 내려오자, 신이치를 초빙한 인도문화교류위원회(ICCR) 헬렌 마타이 사무국차장이 파란색 사리를 두르고 꽃다발을 들고 맞이해주었다.

공항건물에 들어서자, 델리시(市)의 R. K. 굽타 시장과 일간지 인디언익스프레스 R. N. 고엔카 회장을 비롯해 인도 SGI 멤버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인사에 나선 신이치는,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이 공항에 와준 것에 황송해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15년 만에 성사된 이번 인도방문이 인도와 일본의 평화· 문화교류를 위한 가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이것으로 환영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인도 현지의 신문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이번에 인도를 방문하고 느낀 첫인상을 말씀해주십시오.”

신이치가 곧바로 답변했다.

“달도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별도 아름다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깜박이는 도시의 불빛도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인도의 신비함, 미래, 꿈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본 소감입니다. 내일부터는 지상에서 인도를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겠습니다!”

신이치가 결의를 담아 답변하자 기자가 “오!” 하고 감탄했다. 폭소가 일었다.

그 말대로 신이치는 정열적으로 움직였다.

대화로 상호이해가 깊어지고 우정이 싹튼다. 대화는 평화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다.

신이치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방문단 일행은 뉴델리의 아소카호텔에 묵었다.

6일 아침, 일대는 안개가 끼어 공기가 서늘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한가로웠다.

그러나 시가지로 나가자 사람들로 북적이고, 노점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활기와 열기가 가득했다. 공항에 마중 나온 델리시의 굽타 시장이 ‘15년 사이에 델리시 인구가 260만명에서 450만명으로 늘었다.’고 한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거리에는 민중의 활력이 가득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일본과 인도의 평화우호를 위한 흐름을 더욱 크게 열기 위해 지도자를 만나 대화하고, 대학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신이치는 오전에 숙소인 호텔에서 이번에 행사를 운영하고 통역 등을 담당한 현지 일본인 멤버 몇 사람과 거듭

협의하고 간담했다.

모두 일본에서 몇번 만난 청년들이었다. 그중에 자와할랄네루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오코우치 게이이치가 있었다. 도쿄 신주쿠구 출신으로 스물여섯살이다.

신이치는 빙긋 웃으며 오코우치에게 말을 건넸다.

“건강해 보여 다행이군. 언제까지 인도에 있을 예정인가?”

오코우치는 단호히 이렇게 대답했다.

“인도에 영주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이곳을 생애에 걸친 사명의 천지로 정했군. 잘 부탁하네. 앞으로의 무대는 세계이다.”

“선생님, 저는 고등부 인재육성그룹 ‘봉추회’의 도쿄 4기입니다. 고등부 때, 인도의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제 사명을 정했습니다. 이 결의를 완수할 생각입니다.”

신이치는 오코우치를 바라보며 웃음지었다.

“훌륭하네. 봉추가 봉황이 되었구나. 기쁘네.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인도에 여러가지 길을 열어놓겠다. ‘스승은 제자를 위해 투쟁하고, 제자는 스승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 이것이 사제불이(師弟不二)이다.”

오코우치 게이이치가 어렸을 때, 이웃에 사는 학회원 중에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창작무용가 부부가 있었다. 오코우치는 그 부부에게서 “인도는 정말 좋은 곳이란다.”라고

듣고, 인도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윽고, 인도에 관한 뉴스 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유년기에 어머니와 함께 입회한 오코우치는 학회의 뜰에서 자랐다. 고교시절에는 신이치가 고등부원을 위해 쓴 <대백련화> 권두언 ‘봉추여 미래로 날아올라라’를 지침으로 삼아 활동에 힘썼다. 그 내용 중에 가슴을 설레게 만든 구절이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세계평화, 다시 말해 세계광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전진해야 할 시대이다. 나는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을 위해 길을 개척했다. 또 앞으로도 길을 개척할 결심이다.”

고등학교 2학년 지리수업 시간 때, 선생님이 흥미가 있는 나라를 조사해오라는 과제를 냈다. 오코우치는 불교의 발상지이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은 인도를 선택했다.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지배당하고 착취당해, 빈곤층도 많았다. 당시 인구는 5억이 넘었다. 오코우치는 인도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오코우치는 고등부 멤버들과 자주 광선유포의 미래도(未來圖)를 이야기했다. “우리 사명은 일본광포보다 오히려 세계광포가 아니겠는가.”라는 친구의 의견에 공감했다. 그리고 세계로 웅비하고 싶다는 꿈이 차츰 크게 부풀어 올랐다.

어느 날, 오코우치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니치렌 대성인은 인도에서 시작한 불교가 동쪽의 일본으로 건너와, 이번에는 니치렌불법이 일본에서 동양으로 그리고 인도로 돌아간다.‘는 ‘불법서환(佛法西還)’을 확신하셨다. 하지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사명을 자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앞으로 인도에 가서, 인도광포를 위해 생애를 바치고자 한다.”

결의의 씨앗이 있어야 비로소 열매가 열린다.

오코우치는 대학진학을 앞두고 ‘인도에서 취업하려면 건축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공대 건축학과에 진학했다. 또 인도 공용어인 영어 습득하고자 힘을 쏟았다. 그리고 같은 공용어인 힌디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당을 다니며 집중강좌도 들었다. 진정한 결의에는 치밀한 계획과 행동이 뒤따른다. 계획과 행동이 없는 결의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1975년 1월, 인도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인도의 대학원에 유학할 수 있는 시험을 보았다. 하지만 합격에는 이르지 못하고 보결자 명단에 오르는데 그쳤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대학 연구실에서 교수를 돕기도 하면서 공부하고, 인도에 유학할 수 있는 길을 모

색했다. 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창제에도 진력했다.

이해 8월 25일, 신이치가 참석한 가운데 봉추회 결성 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하코네연수원(훗날 가나가와연수도량)에서 열렸다. 오코우치는 문화행사에 출연해, 땀투성이가 되어 아프리카 춤을 추었다. 그 직후, 어머니에게서 연수원으로 전화가 왔다.

‘인도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거라.’라는 내용이었다. 오코우치는 연수원 전화로 대사관에 연락했다.

“당신의 유학이 결정되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인도로 출발하십시오.”

귀를 의심했다. 합격자 중 한 사람이 유학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 사람 대신 인도에 가게 되었다. 오코우치는 연수원에 있는 신이치에게 곧바로 보고했다. 신이치는 오코우치의 앞날을 축하하며 염주를 선물했다.

도쿄로 돌아온 오코우치는 주일인도대사관에서 유학수속 등을 마치고 9월 2일, 황급히 일본을 떠났다. 오코우치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 있는 명문 루르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사력을 다한 노력, 진지한 기원 ― 여기에 곤란의 벽을 타

파하는 핵심이 있다.

오코우치가 인도로 건너간 무렵, 인도는 가뭄· 식량부족· 물가상승· 실업· 부정부패 등으로 반정부운동이 고조되어 정세가 불안했다. 세상이 어수선하자 많은 외국기업이 인도에서 철수했다. 오코우치는 그 속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영어로 수업을 듣고, 영어로 시험을 보았다. 노력은 했지만 어학의 벽은 높고 두터웠다. 11월 시험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

‘영어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도에서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절대로 질 수 없다!’

대학 기숙사에서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진했다. 그리고 최우수 성적으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립 자와할랄네루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었다.

오코우치는 “미래로 웅비하는 사명을 자각할 때, 재능의 싹은 급속하게 자란다.”는 신이치의 지도를 되새겼다.

신이치는 뉴델리의 호텔에서 인간적으로 크게 성장한 오코우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든든했다. 직접 육성한 창가(創價)의 젊은 사자(師子)가 드디어 인도의 대지를 질주하기 시작한 모습을 기뻐서 어절 줄을 몰랐다.

고등부를, 봉추회를, 더 나아가 미래부 각부와 미래회 등

을 만들어 광선유포를 위한 인재의 대하(大河)를 연 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후세의 역사가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신이치는 강하게 확신했다.

사람은 모두 각인각색의 개성이 있고, 재능이 있다. 누구나 인재이다. 하지만 그 개성, 능력도 개발되지 않으면 그대로 묻힌 채로 끝나고 만다.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다양한 교육의 장(場)이 필요하다.

그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사명의 자각을 촉구’하는 ‘혼의 촉발이다.

신이치는 인도 광포를 위해 살겠다는 오코우치에게 기념으로 시를 선사했다.

“영원히 / 그대 이름 향기로워라 / 영취산”

2월 6일 오후 3시, 야마모토 신이치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 방문단 일행이 델리대학교를 방문했다. 도서 1000권을 기증하는 증정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1922년에 설립한 인도 최고봉의 종합대학인 델리대학교는 중국과 일본을 연구하는 학과도 있어, 일본을 연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도 되어 있었다.

지성의 전당에는 시계탑이 긍지 드높게 우뚝 서 있었다.

R. C. 메로트라 부총장이 웃는 얼굴로 신이치 일행을 따뜻

하게 맞이해 주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쓴 중후한 풍모가 지성의 광채를 느끼게 했다.

교내에 있는 타고르기념강당에서 교직원과 학생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도서증정식을 거행되었다.

부총장은 인사말에서 일행을 환영한 뒤, ‘야마모토 회장은 소카대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미술관 등을 창립하고, 토인비 박사와 엮은 대담집을 비롯해 많은 저서를 저술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인도에서 일어난 부처의 가르침이 동양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중 한 나라인 일본이 자국의 전통을 살리면서 근대기술을 크게 발전시킨 일을 상찬했다.

신이치는 황송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과학이나 경제발전의 그늘에서 정신성을 잃어가는 일본에 경종을 울리는 말로 받아들였다.

정신성의 상실은 인간의 야만성을 해방시키고, 물욕에 번롱되는 사회를 낳고 만다.

신이치는 정신의 대국인 인도에서 일본이 많이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과학기술의 진보나 부(富)를 손에 넣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풍요로워진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인은 풍족함· 편리함· 쾌적함을 손에 넣은 대신, 오히려 마음은 가난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기술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족애나 우정,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도 과연 커졌는가? 환희나 감사, 만족감, 충실감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길가는 사람들 중에 웃는 얼굴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인간의 행복은 풍요로운 정신의 토양에서 꽃피운다. 마음을 일구어야 행복의 화원(花園)은 넓혀진다.

신이치는 메로트라 부총장의 인사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현재 인도는 아직 발전의 도상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동자가 빛나고, 이야기를 나누면 웃음꽃이 핀다. 이것은 민중의 마음이 풍요롭다는 증거가 아닌가.

앞으로 인도도 틀림없이 급속도로 공업화,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 격류는 발전을 가져오는 반면, 빈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사람들의 풍요로운 마음도 빼앗아버릴지 모른다. 그 사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되리라.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려면, 불법(佛法)이라는 생명의 철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부총장은 도서증정의 의의를 말하고, 증정받은 도서를 ‘가치 있는 선물’이라며 고마움을 피력한 다음, 더욱 힘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도서 증정은 물론이고 야마모토 선생님이 우리 대학을 방문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간의 진실은 바로 행동에 나타난다. 직접 현지로 가서 만나야 우정이 싹트고, 그것이 쌓이면 굳은 신의의 유대가 맺어진다.

다음은 신이치가 인사할 차례였다.

신이치는 ‘델리대학교와 맺은 교육교류는 일본과 인도의 평화·문화교류의 막을 열기 위해 염원하던 일이며, 이번 도서증정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양국의 상호교류와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신조를 힘주어 말했다.

“교육이야말로 21세기의 평화사회를 건설하는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문화교류에는 정치·경제의 차원 이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제가 창립한 소카대학교의 모토는 ‘새로운 대문화건설의 요람이 되어라.’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요새가 되어라.’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델리대학교와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일본과 인도 사이에 무너지지 않는 ‘문화와 평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말씀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신이치에게서 메로트라 부총장에게 자연, 사회과학, 문학, 예술 등 기증도서 1000권 중 일부와 도서목록이 전달되었다.

끝으로 A.P.스리바스타바 도서관장이 단상에 서서, 도서

증정에 깊이 감사함을 표하고 “이 도서증정은 앞으로 상호 이해에 근본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책에 관련해서 인도에 전해지는 일화를 소개했다.

“옛날에 중국에서 어느 고승이 나란다의 불교대학에 유학했다. 학문을 모두 익힌 고승은 귀국을 앞두고 책을 가지고 돌아가기로 했다. 대학은 이 고승에게 짐꾼 열 사람을 붙여주었다. 도중에 배로 강을 건너는데, 책이 너무 무거워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고승이 ‘책을 버려 짐을 가볍게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인도인 짐꾼이 한명이 ‘헤엄쳐서 건너겠다.’면서 강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5명이 잇따라 강에 뛰어들었고, 책을 무사히 중국까지 가져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는 책에 큰 가치를 두는 인도 사람들의 정신이 나타나 있다.

책은 지식의 보고(寶庫)이고, 지혜를 키우는 빛이다.

관장은 화제를 바꾸어, ‘창가학회’의 ‘창가(創價)’는 가치를 창조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고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공해의 해결, 행복확립, 인간의 적대심을 없애는 일 등 인류가 안은 과제는 모두 오늘날 대학에 주어진 과제이며, 그것을 해결하려면 가치창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부처는 이미 먼 옛날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나타냈으며, 그 가르침 속에 새로운 가치창조의 원천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창가학회가 그 불교를 근간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상찬하고, 앞으로도 인도와 일본의 문화· 학술교류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신이치는 인도의 지성이 창가학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느끼고, **“해는 동에서 나오니 일본의 불법이 월지(月氏)로 돌아갈 서상이니라”**(어서 589쪽)라는 성훈을 깊이 되새겼다.

신이치 일행은 델리대학교에서 도서증정식에 이어 대학관계자와 교육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뒤, 재회를 약속하고 캠퍼스를 뒤로했다.

시각은 오후 4시를 지나고 있었다. 일행은 델리대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뉴델리 중심부의 로디정원으로 갔다. 이곳은 15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번영한 로디 왕조의 황제묘가 남아 있는 곳으로, 지금은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는 공원이 되었다.

신이치는 이 공원에서 ‘인도문화연구회’ 멤버와 만나기로 했다.

1972년 6월, 오사카를 방문한 신이치는 간사이의 각 대학

회 대표 약 30명과 간담했다. 그때 어느 멤버가 인도에 유학을 간다고 보고했다. 대화가 무르익자 신이치는 ‘각자 인도에 대해 공부하고, 7년 뒤에 모두 함께 인도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 그룹이 바로 ‘인도문화연구회’이다.

인도에 유학을 간다고 보고한 사람은 외국어대학에서 인도어· 파키스탄어를 공부한 오쓰키 아키하루라는 청년이었다.

오쓰키는 세계 광선유포를 그리며 교학을 연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나습삼장(羅什三藏)이 번역한 법화경을 바탕으로 불법(佛法)을 연찬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한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국적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세계광포를 생각할 때, 산스크리트어로 거슬러 올라가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했을 때 나습삼장의 번역이 얼마나 훌륭한지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

그리고 오쓰키는 인도유학을 결심했다.

신이치는 세계광포를 위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오쓰키의 마음에 기뻤다.

이상이나 말하고 꿈을 말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느냐.’ ‘날마다 어떻게 노력하느냐.’이다. 사명감, 책임감은

행동에 나타난다.

오쓰키는 간사이의 각 대학회 대표들과 함께 신이치와 간담을 나누고, 한달 뒤인 1972년 7월에 인도로 건너가 베나레스(훗날 바나라시)의 산푸르나난드 산스크리트대학교에 입학했다.

2년 뒤에 귀국해 무역회사에서 2년 정도 일하다가 1976년 3월, 다시 인도에 유학을 가 봄베이대학교(훗날 뭄바이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오쓰키는 ‘7년 뒤에 모두 함께 인도에 가자.’고 신이치와 약속한 그날을, 인도의 대학원생으로서 맞이하게 되었다.

1979년 2월 4일, ‘인도문화연구회’ 멤버들은 뉴델리에 도착했다. 가야, 파트나, 캘커타(훗날 콜키타) 등 인도 각지를 열흘 동안 방문해 불교유적을 비롯해 사회상황이나 사람들의 생활 등을 둘러보는 한편, 현지멤버와도 교류하기로 했다. 오쓰키는 그리운 ‘인도문화연구회’의 벗을 뉴델리공항에서 맞이했다.

6일 0시가 지나 뉴델리에 도착한 신이치는 곧바로 연구회 멤버들에게 전언을 보냈다.

“내일 나는 델리대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니, 그 뒤에 만납시다. 그때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디정원에서 멤버들과 재회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청년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이야, 모두들 잘 지냈습니까? 마침내 약속을 지켰군요. 목표로 했던 인도에 모였으니, 모두 함께 기념촬영을 합시다."

신이치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러고 나서 오쓰키의 안내로 공원을 산책했다.

신이치는 '광선유포의 결의에 불타는 청년들이 지금 인도의 땅에 모인 모습을 도다 선생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그리고 또 제자에게로' — 세계광포는 그 서원과 행동의 계승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 진다.

공원을 산책하고 있자니 몇몇 소년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신기한 듯이 일행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이치가 소년들을 손짓으로 불러 '함께 사진을 찍자.'고 말했다. 오쓰키가 힌디어로 통역했다. 부끄러워하는 소년도 있고, 환성을 올리는 소년도 있었다.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은 뒤, 신이치가 선물로 가져온 소카대학교 배지를 아이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 배지는 내가 창립한 대학의 배지입니다. 크면 일본에 꼭 오세요."

신이치는 소년들의 가족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 직업은 대부분 운전사였다.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소년들은 일본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쯤 되는 나이였다.

“모두 친구인가요?”

한 소년이 하얀 이를 보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늘 함께 있어서, 형제와 다름없는 사이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일생의 재산이 됩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또 서로 격려할 수 있으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지지 않고 꿋꿋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외롭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또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어느덧 자신도 영향을 받아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좋은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고 소년들에게 오렌지와 볼펜을 나누어주었다.

몸집이 작은 소년이 씩씩하게 물었다.

“사진이 나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았습니다. 꼭 보내겠습니다.”

동행한 간부가 소년들의 주소와 이름을 받아두었다.

소년들을 보면서 신이치는 이렇게 확신했다.

‘이 아이들은 앞으로 ’일본인‘ 하면 오늘 만난 일을 떠올리

겠지. 대화를 나누면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세계가 우정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세계평화를 이루는 확고한 기반이 된다!’

인도방문 이틀째인 2월 7일,
오전 10시 30분,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은 모라르지 데사이 총리관저를 방문했다. 뉴델리의 삽다르정 거리에 있는, 녹음에 둘러싸인 하얀 건물이었다.
총리는 곧 여든세살이 된다고 한다.
인도의 많은 지도자가 그렇듯, 총리도 마하트마 간디의 불복종운동에 참여해 인도국민회의파로서 독립을 위해 싸웠다. 투옥되기도 했다. 신념을 관철한 사람의 두 눈은 젊은 투혼으로 빛났다.
신이치는 데사이 총리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었다. 중국과 국경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인도는 이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고 싶었다.
네루 모자에 안경을 쓴 총리는 윤곽이 또렷하고 단정한 얼굴에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답변했다.
“대화로 해결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시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

다. 왜냐하면 인도와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깊으며, 우리는 중국을 신뢰하고 형제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1949년 중국혁명 이후로 중국을 지지해왔으며, 중국이 유엔에 가맹하는 것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도 국경 문제가 일어나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신이치가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풀이해서 묻자 총리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저는 언제나 낙관적입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간디도 “나는 어디까지나 낙관주의자입니다.”라고 말했듯이, 낙관주의는 지도자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해도 좋다. 낙관주의는 노력이나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삶의 자세와 전혀 다르다. 낙관주의는 만전을 기할 때 생긴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한다. 승리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자신을 믿는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신이치가 “긴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와 가장 슬펐을 때는 언제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데사이 총리의 낙관주의적인 삶의 자세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저는 지금까지 슬프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굉장합니다. 그럼

기쁜 추억들 중에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총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매 순간이 행복한데, 그중 한 순간만을 골라 행복하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음식이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쁩니다.”

그렇게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불복종운동이라는 치열한 투쟁에 몸을 던질 수 있었으리라. 총리는 지금까지 네 차례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1975년 4월, 치안관계법 적용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항의하면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1주일 동안 단식에 들어갔다. 그때 이미 일흔아홉살이었다. 체중은 하루에 약 1킬로그램이나 빠졌다고 한다.

총리는 당시 심경을 이렇게 썼다.

“몸도, 마음도 해방되어 행복했다. 자기자신에 대해서도, 세계에 대해서도 평안한 경지였다.”

게다가 그 직후에는 다섯번째 투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열아홉달 동안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다.”

“구류 중에 나는 나 자신을 돌이켜 생각하며 살았다. 어떻게 하면 향상할 수 있을지를 늘 나 자신에게 되물었다. ‘내

결점은 무엇인가? 마음은 평온한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사명을 살아가고 향상하려는 사람에게는 역경의 때야말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학습의 터전이 되고, 자신을 연마하는 최고의 도량이 된다.

신이치는 데사이 총리에게 "일본에 꼭 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만일 일본방문이 실현된다면 네번째 방문이 된다.

"일본에 가고는 싶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본의 총리가 인도를 방문해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일본에 가장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우정입니다. 강한 우정의 연대만 있으면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일본인은 규율을 매우 잘 지키고 근면하며 애국심도 강합니다. 서로 친구가 되는 일이야말로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신이치는 기뻤다. 우정이 중요함은 신이치가 줄곧 주장해온 바였기 때문이다.

또 총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를 정치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정치의 최대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

했다. 그리고 미래를 응시하듯 눈을 가늘게 뜨고 계속해서 말했다.

“세계에 군축이 실현된다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를 수립해, 모든 나라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시대가 오기를 염원합니다.”

약 한시간에 걸친 회담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 끝으로 신이치가 진심 어린 응대에 깊이 감사를 표하자, 총리가 자신의 저서 한권을 선물했다. 《바가바드기타(Bhagavad Gita: 신의 노래)》를 해설한 《내 기타관(Gita觀)》’이었다. ‘바가바드기타’는 고대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일부분인데, 인도의 성전(聖典)으로서 간디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이 책 앞부분에는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을 때 찾아온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은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때 생긴다.”고 씌어 있다. 깊은 철학성이 넘치는 말이다. 데사이 총리와 나눈 회담은 ‘정신의 대국 인도’를 탐방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데 어울리는 대화가 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를 비롯한 인도방문단 일행은 오후 6시

30분부터 인도문회교류위원회(ICCR)가 주최하는 환영연에 참석했다.

별빛 아래 ICCR본부 앞뜰에 마련한 환영연에는 외무담당인 쿤두 각외장관(閣外長官)을 비롯해 ICCR 부회장이자 불교학자로 유명한 로케시 찬드라 박사, 인도 외무부 아시아국 랑가나타 국장, 델리대학교 메로트라 부총장 등 각계의 요인 약 250명이 참석했다.

신이치는 한사람 한사람과 인사를 나누면서 양국의 우호와 학술교류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고 나서 강당으로 이동해, 신이치가 단상에 올라 인사했다.

“일본을 출발하기 전에 귀국의 아브타르 싱 주일인도대사를 만났을 때 대사는 ‘불법(佛法)을 넓히는 야마모토 회장에게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는 고향과 같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가족과 같은 여러분의 깊은 온정에 ‘고향’에 온 듯한 심경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인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나, 교육·문화교류에 최대로 노력하고 싶다고 결의를 피력했다. 인류는 지구라는 별을 ‘우리 집’으로 하는 가족이고, 일본과 인도는 ‘영원한 형제’로서 서로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인사를 끝맺었다. 신이치는 그 결의를 실행하듯, 도서증정을 발표하고, ICCR에 기증할

도서목록과 기념품을 쿤두 각외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어서 인도무용을 선보이며 일행을 환영했다. 진심 어린 환대였다.

이번 방문은 불법을 기조로 평화·문화·교육 운동을 펼치는 학회와 교류하기 위해 ICCR이 창가학회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를 초빙한 공식방문이었다. 인도는 니치렌불법(日蓮佛法)을 실천하는 학회에 강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야말로 불법서환(佛法西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으리라.

ICCR이 주최한 환영연이 끝나자, 신이치는 서둘러 뉴델리에 있는 호텔로 갔다. 인도 멤버를 비롯해 일본에서 온 ‘인도문화연구회’ 일행과 저녁을 먹으며 간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도 멤버가 회식장 입구에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신이치와 아내 미네코에게 레이를 걸어주면서 환영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자 환성이 오르고, 참석자들은 일어서서 크게 박수를 치며 맞이했다. 신이치 일행은 각 테이블을 돌았다. 인도 멤버가 앉은 테이블에서 신이치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 사람 한사람에게 말을 건네며 악수를 나눴다.

1961년, 신이치가 인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학회원 중에서 인도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6년 뒤인 1967년에 드디어 멤버가 세명이 되고, 1970년에 인도에 첫 지구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973년 무렵부터는 뉴델리와 봄베이(훗날 뭄바이) 등에서 좌담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1975년에는 스무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인도총회가 개최되었다. 또 기관지 《뉴스레터》도 발간했다.

그리고 지금 약 40명의 멤버가 인도광포의 결의를 불태우면서 기쁜 마음으로 인도 전역에서 모여왔다. 남부의 타밀나두주(州)의 주도(州都)인 마드라스(훗날 첸나이)에서 열차로 하루 걸려 온 동지도 있고, 같은 주의 살렘에서 이틀 걸려 온 동지도 있었다. 또 동부의 머나먼 곳에서 사흘이나 걸려 도착해 기뻐하며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동지도 있었다.

신이치는 18년 전, 인도 부다가야를 방문하면서 동양광포를 기원하며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올려다보고 마음속으로 외친 그때를 잊을 수 없었다.

‘나와라! 몇만, 몇십만의 야마모토 신이치여.’

지금 18성상(星霜)을 지나, 그 새순이 움트는 때를 맞이했다.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 지용보살(地涌菩薩)의 선구가 마침내 힘차게 뛰어나왔다.

신이치는 간담회에서 한사람 한사람을 격려했다.

멤버 중에 지구부장으로서 전 인도를 책임지는 여성이 있었다. 전날 신이치가 도서를 증정한 델리대학교에서 경제학 강사로 교단에 서고 있는 라비나 라티이다. 라티는 1975년 6월에 어본존을 수지했다. 신심에 힘쓰는 가운데 난관을 뚫고 취직을 쟁취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구토· 어지럼증을 극복한 체험이 있었다.

또 북인도의 책임자인 하르디프 샤카르라는 장년부원은 중학교 교사였다.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던 끝에 신심을 시작해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샤카르는 너무나도 착실한 성품이었지만, 자칫 침울해지기 쉬운 성격인 듯했다.

신이치는 책에 “어떠한 때에도 밝고 명랑한 지도자가 되어라.”라고, 모토가 되는 글을 써서 샤카르에게 선사했다.

가족이 불법을 이해해주지 않는 속에 혼자서 신심에 힘쓰는 아로크 아리야라는 청년도 있었다. 신이치는 아리야의 보고를 듣자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분투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힘들겠지만 지금 당신은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격려하고, 염주를 선물했다.

그리고 두달 전에 입회한 부인부원 스바르나 파테르라는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만난 기쁨에 불타 달려왔다. 파테르는 훗날 남편을 병으로 여의고 아들까지 교통사고로 잃

지만, 이날 신이치와의 만남을 가슴에 품고 용기를 북돋아 고난을 이겨낸다.

이곳에 모인 멤버는 대부분 훗날 인도SGI의 중핵으로 성장한다. 라비나 라티는 간사장이 되고, 하르디프 샤카르는 인도소카보리수원의 원장이 된다. 아로크 아리야는 교육부장으로, 스바르나 파테르는 남인도의 중심자가 된다. 온 힘을 다한 격려는 발심(發心)의 씨앗이 되어, 그 사람이 가진 위대한 힘을 이끌어낸다.

인도 멤버와 대화하면서 신이치가 느낀 점은 '많은 사람이 숙명을 전환하고 싶어서 신심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인도에는 업(業, 카르마)이라는 사고가 깊이 자리잡고 있다. '모든 생명은 영원히 생(生)과 사(死)를 반복한다. 그 윤회(輪廻) 속에서 업, 다시 말해 신(身: 몸)· 구(口: 말)· 의(意: 마음)에 따른 행위로 숙업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현재의 고락(苦樂)이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요컨대, 과거세에 쌓은 나쁜 행동이 악인(惡因)이 되어 금세에 악과(惡果)의 과보(果報)를 받는다. 반대로 좋은 행동을 하면 선과(善果)의 과보를 받는다. 또 금세의 악업(惡業)은 내세의 악과가 되고, 선업(善業)은 선과가 된다. 이 생명의 인과(因果)는 불법의 가르침에서도 기조(基調)를 이루는 것이지만, 문제는 악과로 고로워하는 현세의 숙업을 어

떻게 전환하느냐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보면, 아무리 선업을 쌓아도 악업으로 쌓은 죄장(罪障)을 금세에 소멸할 수 없다. 고뇌의 인(因)이 된 악업은 아주 먼 과거세부터 계속해서 쌓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죄장을 소멸하려면 현재는 물론 미래세에도 영원히 선업을 쌓아야 하므로, 금세에는 자신의 고뇌·불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고뇌의 굴레를 벗을 수 없다면, 인생은 절망의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만다.

하지만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일생성불(一生成佛)’을 설하여, 금세에서 자신의 부처의 생명을 현현(顯現)해 숙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길을 가르친다. 신심으로써 인간혁명하여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 자신을 만들면, 모든 고뇌를 타고 넘을 수 있다.

우리는 이 고뇌를 극복한 실증으로써 니치렌불법의 진실을 증명하고, 광선유포를 추진했다. 말하자면 고뇌는, 정법(正法)의 공력(功力)을 나타내기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고, 숙명은 즉(卽) 사명이 된다.

신심으로써 ‘포기’의 인생에서 ‘도전’의 인생으로 ― 인도 멤버 한사람 한사람은 그것을 실감하고 환희에 불타올랐다.

신이치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멤버를 비롯해 인사하러 오

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 상담도 하면서 거듭 격려했다.

자신은 지역에서 불법(佛法)의 리더이지만 신앙체험도 부족하고 지도력도 부족해, 멤버들을 지도할 자신이 없어 고민이라는 질문도 있었다.

“높은 곳에서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광선유포를 목표로 하자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지도입니다.

또 ‘왜 근행을 하느냐?’ ‘왜 신심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느냐?’ 등 멤버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자신이 먼저 진지하게 교학을 연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해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으면 연찬도 더 잘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을 필사적으로 육성하고자 할 때, 자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법입니다.

어쨌든, 막히면 진지하게 창제하고 사색해야 합니다. 불법에서는 ‘이신대혜(以信代慧: 신으로 지혜를 다한다)’를 설합니다. 강성하게 기원하면 지혜가 솟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본존을 믿고, 자신을 믿고 ,창제 제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신이치는 어느 장년부원에게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석존이 성도(成道)한 땅 인도에서 지금 진실한 불법을 사람들에게 넓히겠노라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온갖 고뇌를 해결하려고 신심을 시작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은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신심을 한 진짜 이유는, 지용보살(地涌菩薩)로서 인도를 광선유포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포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가는 속에 최고의 행복경애가 있고, 인생의 무너지지 않는 승리가 있습니다.”

장년부원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 듯한 심정이었다. 사명에 눈뜰 때, 인생의 새로운 가치창조의 길이 열리고 세계는 크게 달라진다.

신이치의 아내 미네코는 각 테이블을 돌다가 자리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인도에는 많은 인재가 탄생해서 미래가 기대되네요.”

“그렇소, 나는 불교 발상지인 인도에 세계모범의 SGI를

만들고 싶소. 그러려면 성실하고 착실하게 인재를 더 많이 육성해야 하오. 인도는 광대하오.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풍부한 견식을 몸에 갖추고,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올바르게 전하고 넓히고 지도할 수 있는 리더가 많이 필요하오. 결코 초조해할 필요는 없으니, 먼저 20~30년 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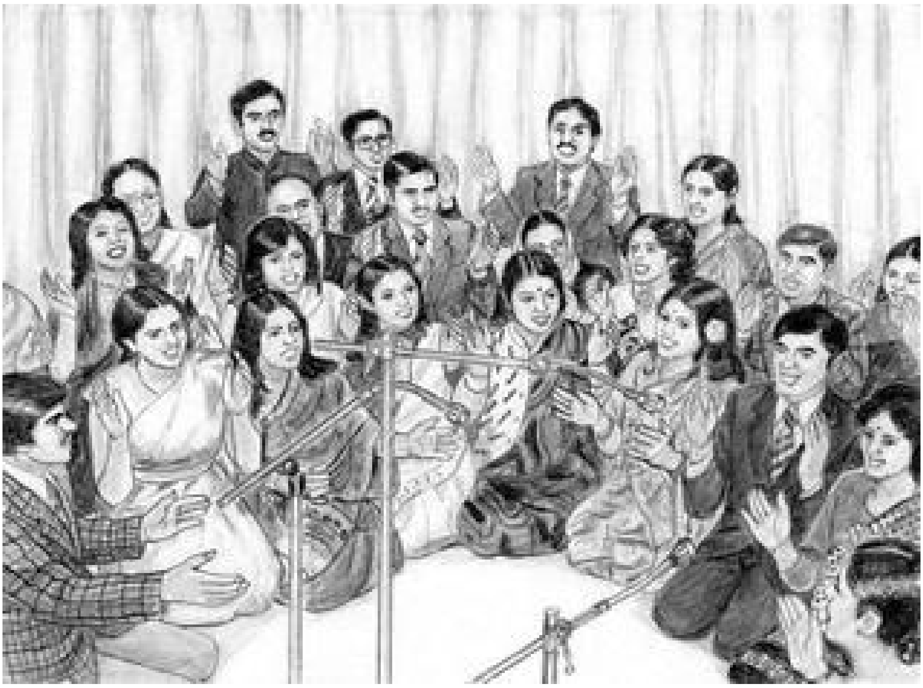
사람을 단단히 육성하여 조직의 초석을 굳건히 쌓아야 되겠지. 21세기에 그 기반을 완성하면, 본격적인 광포확대의 흐름을 열어갈 것이오.

그때 전면에 나서서 뛰어나가는 사람이 오늘 모인 사람들의 후배나 자녀세대가 되겠지. 하지만 만년(萬年)에 걸친 인도광포의 원류(源流)를 여는 중요한 사명의 사람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오. 그렇기에 이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명예로운 인도광포의 개척자로서 생애 신심을 관철하기를 바란다오. 어디까지나 후배를 육성하고 지키면서 금강(金剛) 같은 단결을 자랑하는 인도SGI를 만들어 냈으면 하오.

세계모범의 조직이란, 선배가 후배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응원하는 최고로 사이좋은 조직이오. 제멋대로가 되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광선유포를 위해 서로 칭찬하고 서로 돕는 조직이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각자 인간혁명한 모습이고, 세계평화의 축도가 되오. 인도광포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오.”

간담회에서는 모두 함께 인도국가를 제창했다.

또 ‘인도문화연구회’ 멤버가 일본어로 ‘봄이 왔다’를 부르면, 인도 멤버가 민요를 힌디어로 부르는 등 따뜻한 교류의 한때를 가졌다.



신이치가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다.

“오늘은 많은 인도 멤버를 만나 참으로 기쁩니다. 이중에는 며칠이나 걸려 먼 곳에서 온 분도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18년 전에 처음 인도에 왔을 때가 마치 어제 일 같습니다. 그때는 멤버 중에 인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강하게 결의했습니다.

‘불교가 탄생한 의의 있는 인도에 지용보살이 출현하지 않을 리 없다’ ‘또 반드시 출현시켜야 한다!’

그 뒤로 인도에 수많은 동지가 탄생하기를 날마다 진지하게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광선유포의 사명을 위해 살겠노라며 대표 약 40명이 기뻐하며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대성인이 말씀하신 ‘지용의 의(義)’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용의 동지이고, 숙연이 깊은 ‘형제’이자 ‘자매’라는 자각으로, 인도 사람들을 위해 어디까지나 모두 함께 사이좋게 성장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창가(創價)의 벗이 있습니다. 국경, 민족, 문화의 벽을 초월해 마음과 마음이 단단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 전 세계 동지가 불교의 발상지 인도를 주목하고, 귀국의 미래에 기대를 걸며 진심으로 성원

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웅대하고 유구한 갠지스강도 물 한 방울에서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인도광포의 대하(大河)를 이루는 원류(源流) 한방울 한방울과 같습니다. 양양한 미래를 확신하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20년, 30년, 50년 앞을 목표로 갠지스강과 같은 광포의 흐름을 열지 않겠습니까!

나도 인도의 평화와 발전에 진력하겠노라고 약속하며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갠지스강의 한 방울이 되자! ― 이 말은 인도 동지의 맹세가, 되고 구호가 되었다.

인도에서는 갠지스강을 ‘강가(Ganga)’라고 부른다. 발원지는 히말라야 산맥의 강고트리산에 있는 빙하지역으로, 인도 북부를 가로질러 흐르다가 여러 지류로 갈라져 벵골만으로 흘러간다. 그 전체 길이는 2510킬로라고 한다.

불전(佛典)에 나오는 육만항하사(萬恒河沙)의 ‘항하’는 갠지스강을 뜻한다. 법화경 ‘종지용출품’ 제15에 나오는 ‘육만항하사’는 ‘갠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의 6만배’라는 의미로, 그만큼 많은 무수한 ‘지용보살’이 대지에서 용출하는 모습에 관해 씌어 있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이 인도에도 수많은 지용보살이 반드시 출현한다고 굳게 확신했다.

신이치는 간담회에서 인사한 뒤, 인도 동지와 기념촬영을

하기로 했다. 촬영 때 멤버가 신이치를 위해, 사람들이 정렬한 가운데에 큰 의자를 준비했다. 신이치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멀리서 오신 분을 비롯해 여러분의 노고에 상찬과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가장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의자에는 여러분의 중심자가 앉도록 합시다.”

셔터 소리와 함께 인도 광포를 결의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훗날 이 사진을 보면서 한 멤버가 이렇게 말했다.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진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이 사진처럼 야마모토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신이치도 사진을 볼 때마다 인도 동지를 떠올리며 끊임없이 제목을 보냈다.

직접 만날 기회가 없더라도 서로의 마음은 통한다. 창제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혼과 혼은 이어지고, 결합하는 법이다.

뉴델리에는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길가의 보리수 나뭇잎

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2월 8일 오전, 야마모토 신이치는 인도 외무부를 방문해,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외무부 장관을 예방했다. 장관은 이번에 인도방문단을 초빙한 인도문화교류위원회(ICCR) 회장이자 시인, 작가이기도 하다.

50대 초반으로 반백의 머리에 진한 눈썹과 날카로운 눈이 인상적인, 예리하고 용감한 용모였다.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어제 막 귀국했다고 한다. 눈가가 조금 거무스름해 보였다.

신이치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렇게 말했다.

“자신뿐 아니라 인도를 위해서도 소중한 몸입니다. 부디 건강에 유의해주십시오.”

장관은 온화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인도에서는 어머니와 손님 그리고 교사(敎師)를 ‘신(神)’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인은 손님의 뜻을 최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중요한 도리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말씀입니다. 마치 교육부 장관 같으십니다.”

이 유머에 장관도 유머로 응했다.

“건강을 염려해주시는 회장님은 보건복지부 장관 같으십니다.”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웃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신이치는 국경분쟁이 이어지는 인도와 중국의 관계를 물었다. 이 질문은 데사이 총리에게도 했던 내용이지만, 그만큼 양국의 평화우호가 아시아의 안정을 결정짓는 열쇠이기 때문이었다. 장관은 며칠 뒤에 인도 각료로서는 17년 만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신이치의 질문에 장관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인도와 중국은 같은 아시아 나라이고 이웃나라입니다. 역사를 잊을 수는 있어도 지리(地理)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 두 나라는 이웃하여 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리라. 현실을 바탕으로 끈기 있게 이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만 비로소 정치이다.

바지파이 장관이 한층 더 확신과 정열을 담아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인도와 중국이 ‘평화 5원칙’을 지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화 5원칙’은 1954년에 중국의 저우언라(周恩來) 총리와 인도의 네루 총리가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등의 다섯가지 원칙이다.

장관은 ‘이 평화 5원칙으로 되돌아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향을 분명히 하고, “모든 나라와 우호를 맺는 것이 인도의 생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이치는, 일본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물었다.

“일본은 해가 뜨는 동쪽 나라입니다. 동쪽 하늘에 빛나는 태양은 만물을 평등하게 비춥니다. 먼 땅보다 가까운 땅을 더 따뜻하게 비추는 법입니다.”

매우 문학적이고 함축적인 말이었다. 신이치는 ‘일본은 먼 유럽이나 미국만이 아닌, 가까운 아시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요청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덧붙여 장관은 ‘세계 굴지의 뛰어난 공업생산력으로 커다란 경제발전을 이룩한 일본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를 없애는 데 힘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아소카 대왕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장관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아소카 대왕의 치세(治世)를 언급했다. 그리고 ‘당시는 문화가 번성하고, 무역도 성했다. 또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행복한 생활을 영위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사자와 법륜(法輪)이 들어간 인도의 국장(國章)은 아소카 대왕이 세운 돌기둥 상부를 장식하는 사자상에서 유래한다고 소개하고, 이렇게 말했다.

“인도에서는 종교를 ‘다르마(법)’라고 포착합니다. 이것은

‘생활법(生活法)이라는 뜻이고, 인생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인도사회에서는 종교가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종교는 모든 것을 성립시키는 근본적 관점이다.” — 이 말은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의 탁견이다. 종교라는 토대가 확립되어야 비로소 인생의 충실함도 있다.

장관은 웅변가로 알려져 있다. 큰 제스처와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큰 목소리로 ‘아소카 대왕의 정치’와 ‘민중과 투쟁한 마하트마 간디의 정신’을 말했다.

간디가 민중 속으로 들어가 끊임없이 대화했듯이, 장관도 자주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둘러앉아 대화하면서 그들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신이치는 들었다. 그 한가지 예를 들면, 여권을 발급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말을 듣자 발급절차를 개선하려고 힘썼다고 한다.

웅변과 다변(多辯)은 다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웅변이란 ‘모든 사람의 심정을 대변하는 외침이고,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끈기 있게 듣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숙고와 신념과 정열이 빚어낸 혼의 외침’이다.

장관은 시인이지만 관념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소년기 때부터 사회운동에 몸을 던져, 민중계

발에 심혈을 쏟았다.

젊은 시절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되기도 했다. 또 근래에도 여당 세력의 공격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웃음 띤 얼굴에는 불굴의 정신이 넘쳤다.

간디는 “최종적으로는 ‘원한 없이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비폭력의 엄격한 시금석(試金石)이다.”라고 말했다.

장관은 비폭력 운동의 정신을 살린 정치와 외교의 올바른 모습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인도아대륙(印度亞大陸)을 둘러싼 강대국의 복잡한 힘겨루기도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었다. 이런 거센 파도 속에서 키를 잡는 일은 가혹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격투가 되리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이치는, 장관이 아소카 대왕과 간디의 정신을 계승하고 견지하여 대화에 철저히 힘쓰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바랐다.

훗날 총리가 된 바지파이 장관은, 오랜 세월 대립하던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다.

곤란 속에서 인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일어서려는 장관과 나눈 대화는 신이치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바지파이 장관과 대담을 마친 야마모토 신이치와 그 일행은 뉴델리 교외에 있는 야무나강 인근의 라지가트로 갔다. 이곳은 1948년 흉탄에 쓰러진 간디의 유해를 화장한 곳으로 아름다운 추모 공원으로 조성한 성지(聖地)이다. 신이치는 인도를 처음 방문한 1961년 이래, 라지가트를 두번째 방문하게 되었다.

주위 나무들과 푸른 잔디가 햇살에 반짝이는 온화한 오후였다.

완만한 언덕 꼭대기에 높이 수십센티, 가로세로 3미터 정도의 검은 대리석 단상이 놓여 있었다.

일행은 ‘위대한 혼의 사람(마하트마)’ 간디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맹세를 담아 헌화하기로 했다. 이곳은 성지이기 때문에 모두 구두를 씌우개로 감싼 뒤, 화환을 선두로 엄숙하게 걸었다.

간디가 관철한 비폭력· 불복종운동은 인류사에 인도주의와 평화의 빛을 발하는 독립운동, 인권운동이 되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로라트법에 항의, 영국의 지배에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인도의 전통공예인 차르카(물레)로 면제품 생산, 소금을 전매(專賣)하는 영국 식민지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해 일으킨 소금 행진….

간디의 운동 앞에는 늘 폭력으로 짓누르는 억압이 기

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간디는 어디까지나 비폭력으로 맞서 싸우며 투쟁했다.

간디는 이렇게 말한다.

“비폭력과 겁쟁이는 양립하지 못한다.”

“참된 비폭력은 순수한 용기가 없으면 실천할 수 없다.”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운동은 폭력과 무력에 정신의 힘으로 맞서 싸우는 투쟁이다. 그리고 “정신성의 첫째 조건은 용기”라고 말했듯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요구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성인은 **“니치렌의 제자들은 겁쟁이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어서 1282쪽)**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승리의 역사를 개척하는 위대한 걸음은, 모두 용기라는 각성(覺醒)에서 시작된다.

인류의 역사가 명백히 말해주듯, 세계는 부당한 침략· 지배· 약탈· 학살· 전쟁 등의 폭력과 무력이 버젓이 통용되는 약육강식의 모습이 현실이었다. 그 속에서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인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뢰에는 '사티야그라하(진리의 파악)‘라는, 종교적 확신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간디가 도량(아슈람)에서 기도하면서 '남묘호렌게쿄(南無妙

法蓮華經)'의 제목을 불렀다고 한다.

불법은 십계호구(十界互具), 일념삼천(一念三千)을 설하여 ‘모든 사람이 불성(佛性)을 갖추고 있다.’는 영원불변의 진리를 밝힌 가르침이다. 그 종교적 확신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간디의 비폭력 운동을 계승할 수 있는 분명한 정신적 기반이 있다.

신이치는 간디의 비석에 헌화하고, 기원을 올리면서 마음속 깊이 맹세했다.

‘비폭력의 상징인 대화의 힘으로 인류를 하나로 잇고, 세계평화를 위해 생애를 바치겠다.’

상쾌한 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흔들렸다.

헌화를 마친 일행은 관리인의 안내를 받으며 공원을 둘러보았다.

푸른 나무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형형색색의 꽃이 어우러져 피어 있었다.

공원 한쪽에는 간디가 경계한 '7대 사회악'을 영어와 힌디어로 새겨놓은 비석이 있었다.

— '이념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富)'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 없는 상업(商業)' '인간성 없는 과학' '헌신 없는 기원(祈願)'

모두 간디가 말하는 진리에 반하는 내용이고, '악(惡)'을

낳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을 날카롭게 폭로한 것이다.

신이치는 '헌신 없는 기원'을 경계한다는 점에 아주 강하게 공감했다. 행동으로 이어 지지 않는 신앙은 관념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신앙은 ‘인격혁명’을 가져오고, 나아가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고 헌신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지가트를 둘러본 신이치는, 간디의 정신이 이 추모공원과 함께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내해준 관리인에게 글을 적어 선사했다.

"국부(國父)는 이곳에 잠들고
민중은 이곳을 참배한다.
부자(父子) 함께 영원히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라지가트에서
2월 8일”

일행은 라지가트에 이어, 건너편 대각선 방향에 있는 국립간디박물관을 견학했다.

간디가 사용한 지팡이, 샌들, 차르카(물레), 친필 메모, 조

각상, 또 간디의 청년시절과 어린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 등 언제나 민중과 함께 걸어온 '마하트마'의 수많은 사진을 패널로 전시해 놓았다.

물품 하나하나에서 오로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78년의 존귀한 생애가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

그중에서 신이치를 가장 깊이 감동시킨 물품은, 간디가 암살당한 1948년 1월 30일에 몸에 둘렀다는 ‘혈흔이 묻은 천’이었다. 간디의 발걸음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변혁의 투쟁이었다.

간디는 조국 인도의 독립과 더불어 인도의 대지에 뿌리내린 힌두교도· 이슬람교도의 융화를 바라며 행동했다. 그러나 영국의 분리통치 계획이나 정치적 이해가 얽혀, 종교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그리고 1974년 8월에 독립이라는 비원(悲願)을 이루지만, 힌두교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도와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파키스탄으로 나뉘어 독립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다섯달 뒤, 이슬람교도에게 보복해야 한다고 외치는 과격파 힌두교도 청년이 쏜 흉탄 세발에 간디의 목숨은 사라졌다.

간디는 "내 종교에는 지리적인 한계가 없다."고 외쳤다.

이 말은, 인간이라는 공통항목에 바탕을 둔 종교의 올바른

모습을 나타낸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마련한 답례연이 2월 8일 오후 8시부터 뉴델리의 아소카호텔에서 열렸다.

인도문화교류위원회(ICCR) 카란 싱 부회장 부부와 델리시장 부부를 비롯해 각계 대표 약 50명이 이날 참석했다.

신이치는 미네코와 함께 감사의 말을 건네면서 한사람 한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답례연에서는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싱 부회장과는 두시간 정도 의견을 교환했다.

신이치보다 세살 적은 싱 부회장은 키가 크고 활력이 넘쳤다. 잠무카슈미르주 주지사를 거쳐 서른여섯살에 하원의원이 되어, 당시 인도 역사상 최연소로 각료가 되었다. 또 힌두교를 비롯해 종교, 철학, 과학에 조예가 깊은 지식인이다.

두 사람은 불법이 설하는 십계론(十界論)과 인도의 신들과의 관계, 그리고 종교의 근본인 ‘본존’에 관해 대화했다. 이 대화는 인도의 정신적 토양과 힌두교를 이해하는 데 의미있는 대화였다.

신이치는 답례연 인사에서 ICCR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문화· 교육교류가 국제적인 우호를 착실히 다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교류가 세계를 잇는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싱 부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인류는 역사의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좋은 전통이 사라지고, 생활양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또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세계의 빈곤과 불행을 없애는 힘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인간을 지상에서 말살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인류는 지금 핵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태를 낳은 큰 원인이 외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 인류는 마지막 선택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싱 부회장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라고 말하더니, 참석자를 바라보며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힘주어 말했다.

"인류가 앞으로도 생존하려면 개개인이 결속해, 평화와 조화를 목표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종과 카스트 등으로 인간을 가르는 사고방식은 고쳐야만 합니다. 인도의 옛 시대에는 '인류는 모두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이념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신이치를 비롯해 인도방문단 일행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싱 부회장이 ‘인도는 세계에 자랑하는 고대문명의 발상지이고, 위대한 인물이 나와 뛰어난 사상을 창조했다.’고 언급했다.

"그중 한 사람이 저 유명한 싯다르타(석존)입니다. 싯다르타의 가르침은 아시아 여러 나라로 전해져, 많은 사람이 싯다르타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싯다르타의 가르침을 기조로 하는 창가학회의 사상과 목적을 공부하고, 그 훌륭함에 감탄했습니다. 또 학회가 언제나 평화를 목표로 해왔다는 점에 진심으로 상찬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이 운동은 전 세계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창가학회 여러분을 인도에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서양식 '건배'가 아닌, 아시아식 산스크리트어로 '기원(祈願)'을 외치며 일행을 환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을 위한 기원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엄숙하게 시를 읊었다. 최고의 예를 갖춘 환영이었다.

학회는 이번 초빙에 대한 답례로 이듬해인 1980년 10월, 싱 부회장을 일본에 초대해 우정을 더욱 돈독한 쌓았다. 일본에 왔을 때, 싱 부회장은 신이치와 대화하면서 대담집을 발간하기로 합의하여 1988년 6월에 《내면의 세계-인도와 일본》(일본어판)을 출간했다. 힌두교와 불교라는

차이를 초월해 두 종교의 저류(低流)에 흐르는 인도의 정신적 전통을 부각시키고, 그 정신문명이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내용이다.

신이치는, 날마다 인도의 지도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는 일이 즐거웠다.

2월 9일 —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게 펼쳐졌다.

오전 11시에는 바사파 다나파 자티 부통령을 만나기 위해 뉴델리에 있는 관저를 방문했다. 녹음이 우거진 관청거리 한쪽에 있는 청초한 흰색 건물의 관저가 있었다.

인도의 하얀색 민족의상을 입은 자티 부통령은 조용한 철인 정치가다운 풍모를 풍기는, 예순여섯살의 신사였다.

회담은 아소카왕과 카니슈카왕 등 불교와 인연이 깊은 고대 인도의 왕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 정치철학에서 시작되어, 타고르의 숭고한 정신과 평화주의까지 이르렀다.

신이치가 부통령에게 인생의 모토를 묻자 "'인간적일 것, 정신적일 것, 도덕적일 것' — 이렇게 세가지입니다."라고 바로 대답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중요한 점은 '인격의 순수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개인의 내면과 정신세계에 평화를 확립하는 일이 근본이며, 그것을 전 인류에게 넓혀 현실세계를 석존이 말한 '정토(淨土)'로 바꾸고 싶다는 것이 부통령의 의견이었다.

신이치는 두 팔을 크게 벌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라고 찬동을 표하고, 그것이야말로 창가학회가 지향하는 ‘인간혁명을 기축으로 하는 평화운동’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아동의 해'를 맞아 어린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인도의 과제를 물었다.

"인도의 어린이도, 세계의 어린이도 가장 큰 문제는 건강증진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려면 충분한 의료, 약품, 식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통령은 먼저 ‘생존’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에는 선진국들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좋은 의료시설이 있는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에는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많다. 세계가 늘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일이다.

자티 부통령이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이윽고 차츰 생기를 되찾는 듯, 눈빛이 반짝였다.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위해 인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결의의 눈빛일지도 모른다.

이번 인도방문에서 신이치는 어린이들과 최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형제자매에 관해 물었다. 그러면 "12명이었는데 세명은 죽고, 지금은 아홉명입니다."라는 등, 형제

자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화제에 올랐다.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았다. 0세 아이 사망률도 꽤 높다고 한다. ‘먼저 무엇보다 인간은 끝까지 살아야 한다.’ ― 부통령은 이 절실한 과제와 마주하고 격투했을 것이다.

인도에서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생계에 보탬이 된다.'는 말도 있다.

어린이들은 부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밥벌이를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이가 많아야 생활이 편해진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게 되고, 결국 인구과잉으로 이어진다.

대국 인도의 지도자가 안은 고뇌가 느껴졌다.

부통령은 말을 이었다.

"두번째 문제는 '어린이의 인격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인데, 인격형성을 위해 도덕과 정신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합니다."

신이치는 인도의 지도자들이 미래의 발전을 위해 인도의 깊은 정신성을 청소년에게 전하고, 교육에 힘쓰고 있음을 강하게 느꼈다. 21세기의 세계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착안점이라고 생각했다.

물심양면으로 어린이를 지키고 키우는 일은 어른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그러나 어린이를 그보다 백갑절이

나 더 존중하라. 그리고 더러움을 모르는 영혼의 순수함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라" — 이 말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잠언이다.

사회의 새로운 개혁은, 미래에서 온 사자(使者)인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빛을 보내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좋다.

자티 부통령과 회담한 9일 오후, 신이치는 교육교류의 일환으로 도서를 증정하기 위해 뉴델리에 있는 자와할랄네루대학교를 방문했다.

이 대학은 그 이름이 나타내듯, 고(故) 자와할랄 네루 총리의 사상을 기조로 하여 새로운 학문을 창조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언어학부를 제외하고는 대학원 과정만 있는 국립대학원대학이다. 당시 학생은 총 2200여명이고, 교수진은 약 500명이었다.

신이치는 이번 방문으로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 부총장을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다. 인도사회에는 '불가촉천민'이라고 해서, 카스트제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차별받는 최하층민이 있다. 부총장은 그 출신이지만, 국가를 책임질 인재로서 기대 받고 있었다.

인도가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큰 장벽은 바로 카스트제도였다. 이미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금

지했지만, 그 관습은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태생’에 따라 인간에게 귀천의 딱지를 붙이는 제도와 정면으로 대결하여 ‘인간은 태생이 아니라 행위로 천해지기도 하고 귀해지기도 한다’고 설한 사람이 석존이었다.

마하트마 간디도 인도의 독립과 더불어, 가장 천대받은 최하층 ‘불가촉천민’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리잔’(신의 자식)이라고 불러 최대로 존경했다.

도시에서 카스트제도는 직업카스트로서 세분화되어, 청소 하나만 보더라도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의 카스트가 다르다. 하지만 카스트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 만큼 이 제도를 없애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편견과 차별을 초래하는 카스트제도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없애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처의 생명을 갖춘 존엄무비(尊嚴無比)한 존재이다.’라고 설하는 법화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라야난 부총장은 1920년에 인도 남부의 케랄라주에서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집은 가난했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소년이었다. 형과 누나는 초등학교를 단념하고, 자

신들 대신 나라야난을 초등학교에 보냈다.

나라야난은 먼 길을 걸어서 통학했다. 눈에 띄는 책이나 신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고 메모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교실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었다.

고생에 고생을 거듭한 끝에 트라방코르대학교(훗날 케랄라 대학교)에 진학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대학이 있는 도시는, 일찍이 간디가 차별철폐를 위해 투쟁한 인권투쟁의 무대였다.

나라야난은 대학강사와 저널리스트로 활약하다가 장학금을 받아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 유학하게 되고, 이곳에서도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다. 귀국할 때 정치학자인 해럴드 래스키 교수가 네루 총리 앞으로 소개장을 써주었다.

네루와 만난 이때부터 나라야난의 인생은 바뀌었다. 외무부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고, 외교관으로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된다.

버마(훗날 미얀마), 일본, 영국 등에서 근무하고 타이, 터키, 중국대사를 역임한 뒤, 1979년 네루대학교 부총장에 취임했다.

나라야난의 존재는 카스트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인도에서 편견을 타파하는 선구적인 힘이 되었다. 인간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사회변혁을 촉구한다.

네루대학교에 도착한 신이치 일행은 부총장실로 안내받았다. 그곳에는 백발에 안경을 쓴 나라야난 부총장이 온화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네루대학교에 어서 오십시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중의 대학자인 나라야난 부총장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야마모토 선생님을 우리 대학의 ‘일일 교수’로 모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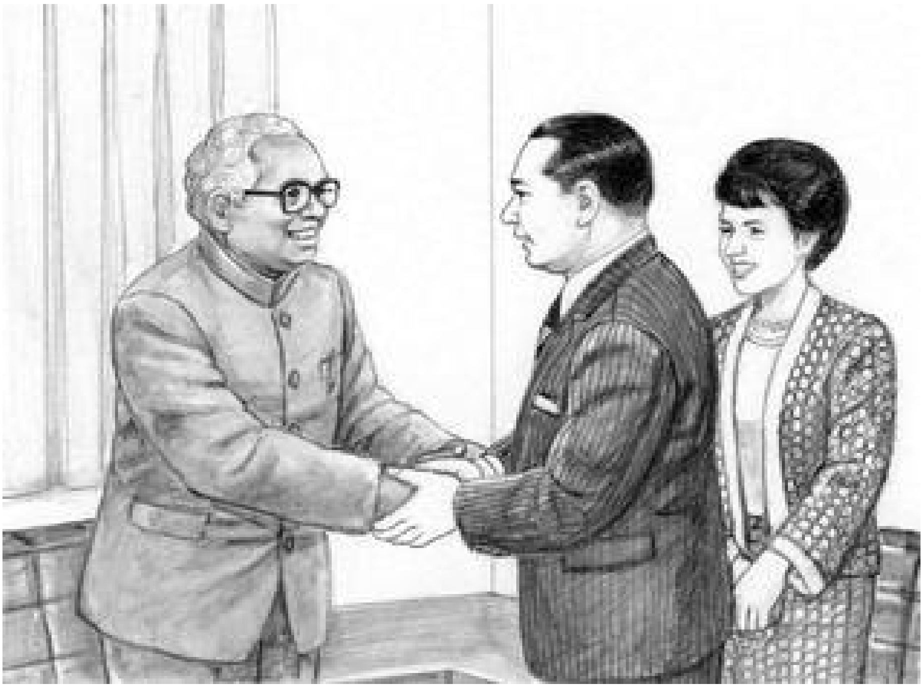
“당치도 않습니다. ‘일일 학생’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 폭소가 터졌다.

신이치는 나라야난 부총장과 함께 도서증정식이 열리는 회의실로 갔다.

부총장은 걸어가면서 대학의 개요를 설명하고 “저는 배우지 못한 인도의 민중을 위해 학생들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신이치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었다. ‘대학은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위해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서 열린 도서증정식에서 인사에 나선 부총장은 ‘평화와 국제이해(國際理解)의 실현을 지향하는 네루대학교의 건학정신에 비추어,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



력하는 창가학회 일행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네루대학교는 특히 일본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본의 경제· 사회발전 등도 학습· 연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자리에는 학부장과 교수 그리고 일본어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참석했다고 소개했다.

증정식에서는 일본어를 전공하는 여학생 네명이 '벚꽃'을 일본어로 합창했다. 발음도 정확하고 노랫소리도 아름다웠다.

일행은 큰 박수를 보냈다. 여기저기서 앙코르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요청에 여학생들이 '봄이 왔다.'를 부르고, 그 중 한 사람이 일본 포크송인 '이 넓은 들판 가득'을 독창했다. 모두 빨려들어가 듯 귀를 기울였다.

신이치는 여학생들에게 "마치 일본에 돌아온 듯한 기분입니다. 최고의 환대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또 교수진에게 "멋진 노래를 불러준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웃음이 일었다.

신이치는 그저 책을 증정하는 의식이 아닌,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유대를 맺는 데 도서증정식을 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일본과 인도 사이에 맺은 정신문화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 교육· 문화교류에 최선을 다해 노

력하고 싶다.'고 말하고, 기증할 일본어 서적과 영어 서적 1000권의 도서목록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

나라야난 부총장도 신이치와 마찬가지로 도서 증정을 단순히 책을 주고받는 의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은 듯했다. 부총장은 신이치에게 "부디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간담으로 이어졌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신이치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는 창가학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박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만, 야마모토 선생님은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장이 바로 설명했다.

"요컨대, 저 학생에게는 야마모토 선생님이 곧 '연구대상'입니다."

"예, 무엇이든 질문해주십시오. 당신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신이치는 질문 하나하나에 정중히 대답했다. 청년을 가벼이 여긴다면 미래를 가벼이 여기는 일이 된다. 네루는 "청년은 '내일의 세계'이다." "내일의 세계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렸다."고 외쳤다.

신이치는 대답할 때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다음 질

문을 해주십시오!”라고 확인하며 이야기를 진행했다. 부총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았다.

간담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부총장이 “오늘은 학생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한 학생뿐 아니라 모든 참석자가 창가학회와 야마모토 선생님의 인품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신이치가 황송해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저야말로 신세가 많았습니다. 청년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가져, 가장 유익한 한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부총장님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한 줄로 서서 눈동자를 빛내며 일행을 배웅했다.

신이치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다.

청년의 눈동자는 미래를 비춘다. 그 눈동자가 빛나는 한, 그 나라의 미래는 희망으로 빛난다.

신이치는 나라야난 부총장과 맺은 우의를 소중히 하면서 그 뒤로도 일본과 인도에서 여러번 만났다.

나라야난은 1984년에 케랄라주에서 하원의원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된다. 외무담당 국무장관 등을 거쳐 1992년에는 우인(友人)인 국회의원이 강하게 추천하여 부통령 선

거에 출마했다. 상하의원 선거 결과 놀랍게도 찬성 700표, 반대 1표로 부통령에 취임했다.

훗날 신이치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장관시절에 한 일이 인정받은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또 몇년 동안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거의 모든 의원과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평소의 행동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쌓은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는 말이다. 또 인간 대 인간의 교류를 통해 쌓은 신뢰가 유사시에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라야난은 인도독립 50주년에 해당하는 1997년 7월, 국회와 주의회 의원 약 4900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약 95퍼센트를 얻어 대통령에 취임했다. ‘불가촉천민’으로 차별받는 최하층 출신에서 최초로 대통령이 탄생했다.

새 아침이 밝았다. 인간이 만든 차별이라는 역사의 어둠을 타파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다.

그 석달 뒤인 10월, 인도를 방문해 대통령을 예방한 신이치는 나라야난 대통령에게 장편시 ‘영원한 인도 신세기의 새벽’을 선사했다.

또 2004년 10월, 신이치는 그 2년 전에 대통령 임기를 마

친 나라야난과 세이쿄신문사에서 7년 만에 네번째 회담을 열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이때, 소카대학교에서 나라야난에게 명예박사학위가 수여되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민중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 ㅡ 이 말은 나라야난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서 의회에서 스피치한, 간디가 남긴 불멸의 말이다.

신이치를 비롯한 인도방문단 일행은 네루대학교에 이어 뉴델리 중심가인 틴무르티에 있는 네루기념관을 찾아갔다.

기념관은 발코니가 나와 있는 중후한 2층 석조건물이었다. 예전에는 영국군 최고사령관이 사용했는데, 인도가 독립한 뒤에는 네루 총리의 거주지로 이용되었다. 네루는 1964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6년 동안 이곳에서 인도의 민중을 위해 평화와 번영을 향한 키를 계속 잡았다. 그리고 네루가 서거하고 반년 뒤, 네루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 되었다.

일행은 S. R. 마하잔 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기념관을 견학했다. 네루 총리의 성장과정을 담은 사진들과 생전에 사용하던 그대로 보존한 집무실· 응접실· 침실, 또 친교를 맺은 사람들과 찍은 사진….

신이치는 인도국민회의파인 간디의 지도에 아래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고, 염원하던 날을 쟁취한 네루의 모습이 떠

올랐다.

1947년 8월 15일 오전 0시 — 길고 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인도 대지 위에 ‘독립’과 ‘자유’의 황금빛 빛줄기가 쏟아지는 순간이었다. 인도의 독립은, 착취당하고 학대받아 온 민중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시성 타고르가 “인간의 역사는 모욕당한 인간이 승리하는 날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비원(悲願)의 때가 드디어 찾아왔다. 그 신생(新生)의 때를 앞두고 초대 총리 네루는 제헌국회에 참석한 모든 의원과 함께 맹세했다.

‘인도를 위해, 민중을 위해 공헌하자. 평화를 위해, 인간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자.’ — 8월 14일, 독립 전야에 세운 서원(誓願)이다. 놀랍게도 이 날은 열아홉살 신이치가 은사 도다 조세이를 처음 만나, 평화와 인도주의를 위해 살겠노라고 각오를 정한 운명의 날이기도 했다.

그 뒤 네루는 동서 냉전으로 갈라진 세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마음을 잇는, 제3세계의 기대주가 되었다.

‘민중을 위해’라는 강한 일념과 투혼이 시대를 건설하는 불굴의 힘이 된다.

2월 9일 오후 8시부터 뉴델리에 있는 호텔에서 인디언익

스프레스사(社) R.N.고엔카 회장의 주최로 인도방문단 일행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렸다.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인도 굴지의 일간지다.

환영연에는 중국방문을 앞둔 바지파이 외무부 장관, L.K. 아드바니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지성이 참석해, 진심이 오가는 대화의 밤이 되었다.

고엔카 회장은 호방하고 걸걸하면서도 예리하고 용감한 신문인(新聞人)이었다. 7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쾌활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활력이 넘치는 말투에는 불굴의 투지가 넘쳤다. 신이치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공항까지 마중 나와 주었다.

고엔카는 1904년 4월에 인도 동부 비하르주에서 태어났다. 청년시절에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쟁취하겠노라며 간디의 운동에 동참했다.

자신이 발행하는 <인디언익스프레스>를 무기로, 영국이 저지르는 숱한 허위를 폭로하고 끝까지 투쟁했다.

인도가 독립한 뒤에도 신문은 정부의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고엔카는 굴하지 않고 언론인으로서 주의주장을 관철했다.

신이치가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고엔카 회장은 가슴을 활짝 펴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 대한 의무입니다! 신문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서 위탁· 신임을 받은, 말하자면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응하기 위해, 저는 지배자에게 굴복하거나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인의 사명은 민중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보이지 않는 마음에 부응해 투쟁하는 데 있다.

권력은 정신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가장 먼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혼을 버리는 일이 된다.

또 인생의 처세훈(處世訓)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결코 파괴하면 안 된다. 건설적이어라.' ― 이것이 제 인생 방침입니다."

환영연이 일단락되자 고엔카 회장이 매우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신이치에게 이렇게 전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손녀의 결혼 피로연에 가야 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의 결혼 피로연이 이튿날이라 야간열차를 타고 피로연 장소로 떠나야 했다.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인도의 결혼식은 매우 성대해서 피로연을 열기 1주일 정도 전부터 잔치를 벌인다고 한다. 그런 상황인데도 피로연

전날 밤까지 시간을 내어 환영해주었다.

신이치는 고엔카라는 사람의 인간성을 느낄 수 있었다. 신의에는 반드시 신의로 보답하자고 생각했다.

10일 오후, 신이치 일행은 뉴델리의 잔파트거리에 있는 인도국립박물관에 갔다. 석기시대를 비롯해 인더스문명의 도시유적인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발굴물, 마우리아왕조의 아소카왕이나 쿠샨왕조의 카니슈카왕, 굽타왕조 등 각 시대의 문화유산을 전시해 놓았다. 조각, 회화, 주화, 갑옷, 투구, 직물, 보석, 전통예술작품 등 모두 귀중한 물품이다.

박물관을 견학한 신이치는 관장인 M.R.바나르지 박사와 회담했다. 오랜 세월 고고학 연구에 투신해 많은 문화유산을 발굴한 박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발굴하면서 가장 기뻤던 적은, 과거에 인도에서 철기를 생산한 사실을 발견해 인도의 철기시대를 밝혔을 때입니다.”

발굴작업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 작업으로 인류의 역사가 하나하나 해명된다.

도다 조세이는 “인재를 발굴하라.”라고 자주 말했다. 그 또한 끊임없이 가정방문 하고 대화해야 하는, 정말이지 착실한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인재라는 보물의 발굴이야말로 광선유포의 미래를 여는 황금빛이 된다.

2월 11일 — 은사 도다 조세이가 태어난 날이다. 도다가 살아 있다면 일흔아홉이다.

그 스승을 대신해 야마모토 신이치는 지금 평화여행을 계속하면서, 스승이 가장 광선유포를 바라던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 제자인 자신이 감청색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음에 깊은 감개를 느꼈다.

신이치는 ‘도다 선생님이 오래오래 사셨으면 했는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렸다.

하지만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불이(不二)의 제자인 나를 남기셨다. 선생님을 대신해서 살고 또 살아 끝까지 살아서 동양 광포를, 세계광포를 추진하자!’고 몇번이고 되뇌었다.

신이치에게는 제자의 길을 관철했다는 강한 자부심이 있었다.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갠 하늘처럼 마음에는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었다. 사자(師子)의 투혼이 태양처럼 활활 타올랐다.

이날 아침, 신이치를 비롯한 인도방문단 일행은 뉴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비하르주(州) 주도(州都)인 파트나로 갔다.

이동하는 내내 저 멀리 백설을 품은 눈부신 히말라야 봉우리가 보였다.

오전 11시가지나 파트나 공항에 도착한 일행을 파트나시

(市)의 R.N.신하 행정장관을 비롯해, 먼저 와 있던 ‘인도문화연구회’ 멤버들이 맞이해주었다.

그 속에 키가 큰 인도 청년이 보였다. 학회원인 이 청년은 이날 아침, 현지의 신문을 보고 신이치가 파트나에 온다는 소식을 알았다. 그래서 마당에 핀 장미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공항에 달려왔다.

청년이 꽃다발을 내밀자 신이치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굳게 악수를 나눈 뒤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은, 가족 중에서 자기 혼자만 입회했다고 말했다.

신이치는 동행한 인도 주재 일본인 회원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신심에 힘쓰며 행복해져야 할 사명이 있고, 파트나에 불법(佛法)을 넓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온 힘을 다해 격려한다. 거기에서 광선유포의 길이 열린다.

파트나는 그 옛날 ‘꽃의 도시’(파탈리푸트라)로 칭송받은 곳이다. 녹음에 둘러싸인 거리를 걸으면, 차들과 함께 방울소리를 울리며 활보하는 소달구지도 볼 수 있는 한가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오후 4시 전, 신이치는 자야프라카시 나라얀의 자택을 찾

아갔다. 마하트마 간디의 제자인 나라얀은 ‘인도의 양심’으로서 민중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다.

자동차는 흙벽 집들이 늘어서 있는 뒷골목의 복잡한 길을 달려 하얀 석조건물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소박한 건물이었다.

나라얀은 은테안경 너머 온화한 눈빛으로 처음 만나는 신이치를 환영하고, 노란색 꽃목걸이를 직접 목에 걸어주었다.

나라얀의 갈색 가운 사이로 머플러가 보였다. 몸에 한기가 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듯했다. 이미 일흔여섯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1주일에 몇 차례 병원을 다니며 자택에서 휴양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중히 마중을 나오고, 회담시간까지 내준 정성에 깊이 감동했다.

나라얀은 고교시절에 국민혁명의 이상에 불타 비폭력· 불복종운동에 참가한다. 이윽고 미국으로 건너가 마르크스의 혁명사상에 빠진다. 급진적인 사회개혁에 심취해, 간디의 비폭력 투쟁을 부정하고 무력혁명을 긍정한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간디의 수제자인 비노바 바베에게 촉발되어, 다시 비폭력혁명의 길을 걷게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간디의 품

으로 돌아왔다. ‘양심’의 대지라고 할 수 있는 간디의 사상은 나라얀의 생명에 ‘양심’의 나무를 소생시켰다.

간디가 세상을 떠난 뒤, 나라얀은 스승의 사상을 이어받아 모든 계층 사람들을 계몽하는 ‘사르보다야 동’을 펼친다.

아무리 풍요롭게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당하고 굶주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회의 번영은 허구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행복을 누려야 비로소 진정한 번영이라 할 수 있다.

신이치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 나라얀 선생님의 사상을 듣고 세계에 소개하고자 찾아왔습니다”라고 회견의 취지를 전했다.

“저의 사상은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원한 진리를 설한 석존의 사상을 믿습니다.”

이 말에는 인도에 맥동하는 정신의 원류가 무엇인지 명확히 나타나 있었다.

나라얀은 스승으로 우러르는 마하트마 간디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건물은 아내가 지었는데, 이곳에서는 여성이 사회복지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육성을 위해 유치원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아내의 뜻을 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담장소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커튼도 변변치 않았다. 정말이지 가능한 모든 것을 민중을 위해, 사회를 위해 바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신변의 일상생활에 여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나라얀은 몇번이고 감옥생활을 했다. 신이치는 ‘오늘이 은사 도다 선생님의 생일’이라고 전하고, ‘창가학회 초대 회장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선생님은 군부정부의 탄압으로 옥사하고, 제2대 회장인 도다 선생님도 2년 동안 투옥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라얀에게 감옥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라얀은 신이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억울한 죄로 투옥되었습니다.”

나라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탁자 위에 놓아둔 책을 들었다. 책 제목은 《옥중기록》이었다. 나라얀이 감옥에서 체험한 일을 적은 수기(手記)인데, 초판은 비밀리에 출판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책이다. 그 책에 서명하고, 인도의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썼다는 자신의 전기(傳記)와 함께 신이치에게 선물했다. 이 책 속에 질문의 답이 있을 것이다.

나라얀은 조용한 말투로 신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감옥에서는 독방에 갇혀 고문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편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바깥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허락되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그 어려움은 강철 같은 불굴의 의지를 단련시켰다. 니치렌대성인은 **“쇠는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검으로 되고”**(어서958쪽)라고 말씀하셨다.

늙은 투사는 타인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대화하는 중간 중간에 몇번이나 과자를 권했다.

“인도 과자입니다. 저희 집에서 만든 과자인데, 들어보십시오. 달콤합니다.”

신이치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자, 나라얀이 “아까부터 전혀 드시지 않았습니다.”라고 ‘항의’했다. “아, 지금은 대화가 중요하니까요. 한창 탐구하고 학습하는 중이라….”라고 대답하자, ‘불굴의 사람’의 상냥한 웃음이 신이치를 감쌌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기에 타인에게 다정할 수 있다.

신이치는 신조가 무엇인지 물었다.

“시대에 따라 바뀌었지만, 지금은 간디의 사상이 저의 신조입니다. 그것은 석존의 가르침에도 통합니다. 그 사상은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 위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반나체의 간디와도 같은 ‘알몸뚱이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몸뚱이 사상’ー 신이치는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했다.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인간을 압박하는 갑옷‘과 같은 사상이 아니다. 인간의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인 ‘이론(理論)의 옷’도 아니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면서 현실의 가난과 불행에서 어떻게 민중을 해방시킬 것인지를 고민해, 민중과 함께 걷고 동고(同苦)하면서 배양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얀은 그 사상적 관점에서 인도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가 ‘카스트제도’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태생으로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제도’가 부처가 출현한 나라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한탄했다.

나라얀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계몽하는 운동을 펼치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사상 등의 ‘총체적 혁명(Total Revolution)’을 주장했다. 신이치도 총체적 혁명을 제창하고 추진하는 사람으로서 그 혁명의 기축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강조했다.

‘저는 결국은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혁명이 그 기본이고, 거기에서부터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과 변혁으로 넓혀

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회라도 그 사회는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요컨대 모든 것의 근원인 인간의 혁명을 기축으로 해야 비로소 총체적 혁명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라고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두 사람은 사형제도의 옳고 그름 등을 논의하고, 많은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대담을 마친 신이치는 저녁노을이 물드는 갠지스강 근처에 서 있었다. 인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오고 18년만이다. 저 멀리 건너편 강가가 희미하게 보이고, 해질녘 하늘에는 벌써 둥근 월천자(月天子)가 하얗게 빛났다. 하늘이 시시각각 어둠에 감싸이자 달은 금빛으로 바뀌고, 강물 위로 내려앉은 달빛이 너울너울 퍼졌다.

‘은사가 광포 여행을 꿈꾸었던 인도’ —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의 생일에, 자신이 인도의 갠지스강 강가에 서 있는 것이 불가사의하게 느껴졌다. 도다와 나란히 서서 달을 함께 올려다보는 듯했다. 또 광선유포의 험난한 길을 오로지 계속 걸어온 하나의 도달점에 지금 서 있는 듯한 기분도 들었다.

도다의 뒤를 이어 제3대 회장에 취임하고부터 19년, 온갖 사태를 만났다. 어떻게 하면 난국을 헤치고 나가 새로운 창가(創價)의 대도(大道)를 열 수 있을지를 고뇌하고 또 고뇌

하다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기도 했다. 기진맥진하여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겨울 때도 있었다. 그런 때도 언제나 도다는 신이치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리고 엄애(嚴愛)의 질타가 울려퍼졌다.

'대난(大難)은 노도(怒濤)와 같이 밀려온다. 그것이 광선유포의 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도다의 제자가 아닌가! 지용보살이 아닌가! 자네가 광포의 깃발을 드높이 치켜들지 않으면 누가 든단 말인가! 일어서라! 사자(師子)라면 일어서라! 인간승리의 역사를, 광포의 위대한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

갠지스강 강가에는 드문드문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그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고인을 화장하는 풍경이었다.

‘재가 되어, 성스러운 갠지스강으로 돌아간다.’ ―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엄숙한 의식이다.

생(生)과 사(死) ― 영겁(永劫)으로 생사유전(生死流轉)하는 무상(無常)한 생명, 하지만 그 생명 심오한 곳에 상주불변(常住不變)하는 대법(大法)을 각지(覺知)한 성자(聖者)가 한 사람 있었다. 석존이다. 샛별이 반짝이는 새벽, 보리수 아래에서 생명의 진리를 개오(開悟)한 석존은, 고뇌하는 민중

을 구제하겠노라며 결연히 일어섰다.

그 흉중(胸中)에 샘솟는 맑고 시원한 지수(智水)는 불법(佛法)의 원류(源流)가 되어 인도의 대지를 윤택하게 했다. 석존의 가르침은 달빛처럼 마음속 어둠을 비추며 동남아시아 각지로 넓혀졌다. 북쪽은 중앙아시아를 시작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이르렀다.

그 가르침의 정수는 법화경으로서 나타났지만, 말법오탁(末法五濁)의 어둠 속에 석존의 불법은 멸하려고 했다. 그때 일본에 니치렌 대성인이 출현하셨다. 대성인은 법화경에 씌어 있는 ‘우주와 생명에 내재하는 근본법’이야말로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임을 명확하게 밝히셨다. 그리고 그 대법을, 어본불(御本佛)의 위대한 생명을 말법의 일체중생을 위해 어본존(御本尊)으로 도현하셨다.

"니치렌의 혼을 먹물에 물들여 넣어서 썼으니 믿으실지어다. 부처의 어의(御意)는 법화경이며 니치렌의 혼은 바로 남묘호렌게쿄이니라."(어서 1124쪽)

"이에 니치렌이 어떠한 불가사의한 일인지 용수(龍樹) 천친(天親) 등, 천태(天台) 묘락(妙樂) 등조차도 나타내시지 않았던 대만다라를 말법 이백여년경에 비로소 법화홍통(法華弘通)의 기치(旗幟)로서 나타내 드리느니라."(어서 1243쪽)

대성인은 탁세말법에 지용보살의 선구로서 홀로 묘법유포

(妙法流布)를 위해 투쟁을 일으키고, 세계 광선유포를 말제자(末弟子)에게 의탁하셨다. 그리고 700년 뒤에 창가학회가 출현해, 광포의 대법전(大法戰)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니치렌과 동의(同意)란다면 지용보살이 아니겠느뇨."**(어서 1360쪽)라는 말씀처럼, 현대에 출현한 지용보살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관심본존초(觀心本尊抄)’에서, 지용보살은 **"말법의 초(初)에 나오시지 않겠느뇨"**(어서 254쪽)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용보살이 출현하는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보살(四菩薩)이 절복(折伏)을 나타낼 때는 현왕(賢王)이 되어 우왕(愚王)을 계책하고"**(어서 254쪽)라고 말씀하셨다.

말법에 지용보살이 '절복'을 할 때에는 '현왕(賢王)', 다시 말해 재가(在家)의 현명한 지도자가 되어, 미쳐 날뛰는 격동의 사회에 출현한다고 말씀하셨다. “우왕을 계책”이라는 말씀은, ‘사회에 군림하면서 민중을 불행하게 만드는 권위·권력’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이다. 주권재민인 오늘날에는 ‘각계 지도자를 비롯해 전 민중의 흉중에 정법(正法)을 세워, 불법이 설하는 생명존엄의 철리와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개혁과 건설에 매진하는 것’을 의미하리라. 요컨대, 입정안국(立正安國)의 실현이다. 홍교라는 광선유

포의 활동은 입정안국을 이루어야 완결된다. 절복의 목적은 개인의 내면 변혁함으로써, 현실의 고뇌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이치는 말법시대에 불법유포를 실현하는 창가학회의 중대한 사명을 깊고 강하게 자각했다.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초대 회장은, 국가신도(國家神道)를 정신적 지주로 삼아 전쟁을 수행하려는 군부 정부의 그릇됨을 파절했을 뿐 아니라, 신찰(神札)을 모시라는 것도 감연히 거부하다 체포되었다. 조사받는 자리에서도 니치렌 불법(日蓮佛法)의 정의를 주장했다. 그야말로 '우왕을 계책'하다가 옥사하는, 순교의 일생을 마쳤다. 또 마키구치와 함께 군부정부와 맞서 싸우면서 옥중투쟁을 전개한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는 회원 75만 세대 절복을 감행하여 광선유포의 기반을 만들고, 민중이 주도하는 사회변혁운동을 추진해 입정안국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도다는 학회를 '창가학회불(創價學會佛)'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에는 ‘탁세말법에 출현해 현실사회에서 광선유포 즉(卽) 입정안국의 투쟁을 승리해야 하는 학회의 존귀하고 위대한 사명’이 나타나 있다.

신이치는 갠지스강 강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미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져 월천자가 더욱 맑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한줄기 바람이 강물을 흔들고 지나갔다.

신이치의 눈에 동양광포를 바라던 은사 도다 조세이의 얼굴이 떠오르며 달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신이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선생님! 신이치는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의 무대인 세계에서 광선유포의 대도(大道)를 계속 열어 가겠습니다! 제자의 감투(敢鬪)를 지켜봐주십시오'

달이 빙그레 웃었다.

그날 밤, 숙소인 호텔에서 신이치는 아내 미네코와 함께 도다의 사진을 향해 새로운 광포의 투쟁을 맹세했다.

이튿날 12일, 신이치를 비롯한 인도방문단 일행은 불교 유적지인 날란다로 출발했다. 파트나에서 차를 타고 두시간 정도 달려, 오후 2시가 조금 지나 장대한 유적지에 다다랐다.

선명한 푸른 잔디 위에 역사가 고스란히 퇴적(堆積)되어 있는 벽돌구조의 유적이 늘어서 있었다. 복도가 이어져 있고, 계단이 있고, 물을 채웠던 우물이 있었다. 학승(學僧)이 거주하고 공부했던 승방(僧房)도 늘어서 있었다.

5세기 굽타왕조의 쿠마라굽타 1세가 승원(僧院)으로서 창

건해, 차례차례 증축· 확대했다고 한다. 그리고 하르샤왕조를 거쳐 12세기 말 팔라왕조까지 700년 동안 번영하면서 불교를 연구하는 대학이 되었다.

안내원의 이야기로는 날란다의 '날란'은 지식을 상징하는 '연꽃'을, '다'는 '전수하다'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곳에는 인도뿐 아니라 아시아 각지에서 학승들이 찾아왔는데, 최고 절정기에는 1만명이나 되는 학승과 1000명이나 되는 교수가 모여 불법을 연찬했다. 계산해보면 교수 한명당 학승이 열명으로, 소수인원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제(師弟) 간의 대화로 한사람 한사람과 혼의 촉발을 도모한다.‘ — 여기에 인간교육의 원점이 있다. 또 사제 간의 대화로 불법의 법리는 세계로 넓혀졌다.

날란다 유적지의 안내원이 이렇게 설명했다.

"승원에서는 입학하면 1년 동안은 학승에게 개인 방과 침구, 책상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학문 연구가 진행될수록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고, 졸업할 때에는 진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떠난다고 합니다."

요컨대, ‘정신을 단련해, 물질 등에 현혹되지 않고 일심(一心)으로 법을 구도하는 인격을 확립했다.’는 뜻이다. 인격을 연마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식을 습득해도 진정으로 교

육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도다 조세이는 창가학회를 '교사(校舍) 없는 종합대학'이라고 표현했다. 불법의 법리를 배우고 인간의 길을 탐구하는 학회조직은, 행복과 평화를 창조하는 민중대학(民衆大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이치는 이 '교사 없는 종합대학'이 인간교육의 장(場)으로서 시대와 더불어 반드시 더욱더 크게 빛나리라고 확신했다.

날란다 불교유적지를 견학한 일행은 파트나로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다. 손목시계를 보니 오후 5시 30분이었다.

수염을 기른 휴게소 주인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나이는 마흔살 전후로 보였다.

신이치가 일본에서 왔다고 말하자, 주인장은 놀랍다는 듯이 두 팔을 벌렸다.

"그렇다면 저희 집에 꼭 들렀다 가십시오. 바로 이 앞입니다."

"후의는 고맙지만, 곧 저녁을 곧 먹을 시간이므로 가족분에게 폐가 될 듯합니다."

"아닙니다. 가족도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손님과 교사와 어머니는 신(神)'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을 경배하는 듯이 손님을 환영합니다."

바지파이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들은 이야기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없다면 처음 보는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일도 것이고 굳이 상관하지도 않을 것이다.

신이치는 사람들의 정신과 생활 속에 종교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실감했다.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삶의 철학을 가지는 일’이다.

신이치 일행은 휴게소 주인의 호의를 받아들여 자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집은 석조건물이었다. 일행을 뜰에 안내한 주인은 우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안뜰에서 간담을 나눴다. 일행이 맨 먼저 소개받은 사람은 주인의 어머니였다. 인도의 가정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두터운 듯했다.

가족이 모두 나와서 홍차와 과자를 대접해주었다. 일행을 위해 지금 나무열매 요리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신이치는 무례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만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흔쾌히 부엌으로 안내해주었다.

두 딸이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풍로처럼 생긴 난로에 우유와 물을 끓이고, 나무열매를 볶고 있었다. 수도나 가스 등 이렇다 할 조리대도 없었다. 그러나 바닥에 깨끗하

게 물을 뿌려놓아 청결한 느낌이 들었다.

내놓은 과자는 모두 집에서 만든 것이다. 또 쿠션커버와 아이 옷 등 대부분 직접 만든 것들이었다. 결코 물건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물건 하나하나에 애착이 넘치고 인간적인 온정과 풍요로운 마음을 느끼게 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사라져가는 것들이 이곳에는 있었다.

홍차를 마시며 대화가 무르익었다. 신이치가 "가족은 몇분입니까?"라고 물었다.

주인장은 "일곱, 아니 여덟입니다."라고 말하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큰 개 한 마리를 안고 왔다.

"이 개도 우리 가족입니다."

주인의 표정에는 '가족'이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저 애완견이 아니라 일의 역할도 분담하는 공동생활자일 것이다.

30분 정도의 방문이었지만, 신이치 일행과 가족은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돌아갈 때 신이치가 기념품을 건네자, 주인이 "꼭 다시 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몇번이고 신이치의 손을 꼭 잡았다. 국경도, 민족의 벽도 뛰어넘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대화해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인간의 유대도 깊어진다.

인도에 머문 지도 8일째를 맞았다. 파트나에서 캘커타

(현재는 콜ㅋ타)로 이동하는 13일 오전, 야마모토 신이치가 묵고 있는 호텔에 비하르주 파트나구(區) G·S·그레왈 장관이 찾아왔다. 터번과 수염이 잘 어울리는 장관은 파트나구의 법원장관이기도 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곳저곳을 안내하고 싶었는데, 공무가 바빠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일행의 파트나방문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정중히 사의를 표하는 장관의 성의에 신이치는 황송했다.

신이치는 이번 인도방문으로 우호와 평화를 위한 유익한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훌륭한 파트나의 모습과 황금 같은 추억을 일본에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회견을 마친 신이치는 파트나박물관을 견학한 뒤,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인도의 마지막 방문지인 캘커타로 갔다.

이튿날 14일 오전, 신이치는 이곳 캘커타가 주도(州都)인 서뱅골주의 트리부반 나라얀 싱 지사의 관저를 예방했다. 지사는 이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 인사를 빨리 끝내고 이렇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께 꼭 여쭙고 싶습니다. 세계평화와 우호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나 단순한 말이 아닌, ‘평화를 위해 실제

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말이리라. 신이치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핵무기 폐기' '군축추진(軍縮推進)' '문화교류' '교육교류' '민간교류' 등을 들었다. 그리고 항목마다 지금까지 추진한 일들과 그 의의와 확대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현실에서 행동할 수 있는 일부터 착수했습니다. 작은 한 방울이라도 결국 큰 강이 되어 드넓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먼저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희망찬 미래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 법이다. 스스로가 용기 있게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신이치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가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은 달팽이처럼 느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끈기 있게 지속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려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십년, 몇백년이 지나면 바위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것이 민중이 펼치는 비폭력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창가학회가 펼치는 평화운동입니다."

석존과 인연이 깊은 땅인 바라나시에서 태어난 싱 지사

는 불교에 조예가 깊었다. 신문편집인을 거쳐 하원의원이 되었고, 공업부 장관, 철강광산부 장관 등을 역임한 뒤 1977년부터 서벵골주 지사를 맡았다. 일흔네살의 고령이지만, 목소리는 활력이 넘쳤다.

인구가 약 4600만(당시)인 서벵골주는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인 캘커타를 포함하는 큰 지역이다. 가난한 사람도 많고, 고용문제와 식량문제 그리고 빈곤에 따른 범죄 등의 과제도 산적해 있었다. 싱 지사는 그 현실의 거친 바다에서 벵골 사람들의 생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고 격투했다. 그런 만큼, 그저 입으로 외치기만 하는 관념적인 ‘평화주의’에는 회의를 품었으리라. 그래서 ‘생활인들을 조직해 현실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불법(佛法)을 기조로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창가학회’에 큰 관심을 가진 듯했다.

지사관저는 영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인도의 수도였던 캘커타 총독의 관저였다. 집무실 벽에는 상반신을 알몸으로 하고 있는 간디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지사는 간디와 함께 투쟁했음을 큰 긍지로 삼았다.

이야기가 평화운동의 근간이 되는 이념으로 옮겨지자, 지사는 자신의 신념을 힘주어 말했다.

“저는 ‘인류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석존이

인도에서 설한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처의 생명이 있다.’고 설하는 불법의 법리는 인류통합의 근본이다.

싱 지사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본래, 하나이어야 할 인류가 국가· 민족· 신분 등의 온갖 벽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무너지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려면, 인간이 만든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벽’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이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인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었습니까?”라고 지사에게 물었다.

“영국의 지배가 끝나고 인도가 독립한 지 몇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이 석존이나 간디 등 위대한 인도의 사상가가 부르짖은 가르침과 종교를 잊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종교는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인류사(人類史)에 빛나는 인도의 큰 유산입니다. 그러나 세계도, 정신의 나라인 인도도 그 점을 망각하고 물질문명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도, 인도의 정신문명에서도 가장 슬픈 일입니다.

정신을 지탱하는 종교성을 잃으면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잔인함과 야만성이 폭주하게 된다.

지사는 이어서 말했다.

“간디는 제게 첫째, ‘정치에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정치에는 자비 등의 이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정치는 권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교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사람들에게 다가가라!’라는 실천규범을 나타냈습니다.”

민중을 떠난 정치는 없다. 민중과 끈기 있게 나누는 대화가 시대를 바꾸는 힘이 된다.

그리고 셋째로 ‘겸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허한가. 오만한가.’— 이 일념의 자세가 인생의 성패, 행불행을 결정짓는다. 오만은 자신의 욕망· 사심(邪心)을 해방시켜,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그르치게 만든다. 불법은 오만을 분쇄하는 자기제어의 힘이다.

정신이 서로 공명(共鳴)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든 대화였다.

신이치가 이번 인도방문에서 회담한 인도의 지도자는, 마하트마 간디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여 위대한 인도를 이끌고 있었다. 간디는 흉탄에 쓰러졌지만, 그 동지이자 제

자인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에 간디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 정신의 수맥이 인도의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한, 이 나라는 언제까지고 정신의 대국일 것이라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싱 지사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관저를 뒤로한 신이치 일행은 빅토리아기념관을 견학했다. 인도황제를 겸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해, 20세기 초에 흰 대리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건물이다.

기념관을 견학하고 밖으로 나오자, 초등학교 4~5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교사가 인솔하에 견학하러 와 있었다. 이곳에서도 아이들이 신이치 주위에 모여들어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곳에서 일행이 차를 타고 향하 곳은, 싱 지사가 총장을 맡고 있는 라빈드라바리티대학교였다. 도서증정식이 열리는 이 대학은, 시성(詩聖) 타고르의 사상과 정신을 잇기 위해 타고르의 생가가 있는 터에 세운 교육의 성(城)이다.

타고르는 시가(詩歌)를 비롯해 소설, 희곡, 음악, 회화 등에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예술가이자 사상가이고 교육자이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의 영예에 빛난 위대한 벵골인이자, 동양과 서양의 융합을 바라는 ‘세계시민’이기도 했다.

타고르는 압정(壓政)에 허덕이는 인도 민중의 소리를 인간성의 승리와 평화의 노래로 승화시켰다. 40대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아이들까지 잃었다. 하지만 비애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의 고향 벵골을 분할하려는 영국의 움직임에 맞서 반대운동에 투신해, 고난의 폭풍우 속으로 돌진했다.

"비애가 없는 인생은 없다. 살아간다는 것은 그 비애를 이겨내고 환희를 쟁취하는 일이다." — 이것이 시성의 혼이 담긴 외침이다.

타고르의 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감싸 안고 격려한다.

타고르가 인도의 국가를 작사· 작곡했다는 사실은 유명한데, 파키스탄에서 분리독립한 방글라데시의 국가인 '나의 금빛 벵골'도 타고르가 작사· 작곡했다.

타고르는 간디를 '마하트마(위대한 혼)'라고 불렀다. 그리고 간디는 타고르를 '구르데브(신성한 스승)'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의견이 서로 다를 때도 있었지만, 평화· 비폭력· 진리탐구라는 신념으로 맺어진 '진정한 벗'이었다.

여기에 근대 인도의 여명을 연 정신의 광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후 3시 30분, 프라둘 찬드라 굽타 부총장이 라빈드라바라티대학교에 도착한 신이치를 온화한 웃음으로 맞이했

다. 붉은 벽돌로 지은 타고르의 생가가 산뜻하고 풍격 있는 모습으로 남아 있는 대학 구내에는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했다.

도서증정식에는 많은 교직원과 학생이 참석했다. 굽타 부총장이 앞으로 나와 조금 높은 목소리로 물이 흐르듯 말하기 시작했다.

“타고르는 1916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합니다.”

부총장은, 타고르가 일본의 그림을 본 소감을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소개했다.

“나는, 우리 벵골의 새로운 회화법(繪畫法)에 힘과 용기와 고매함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여러번 생각하게 되었다.”

교류는 혼을 촉발하고, 눈을 뜨게 한다. 다른 문화와 교류하는 속에 발전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끝맺었다.

“일본문화가 타고르에게 영향을 끼친 일은, 근대 일본· 인도문화교류의 첫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아도 정치적인 연대는 결코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연대에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정신을 촉발하고 마음을 연결한다. 그러므로 학회는 문화의 대도(大道)를 개척하며 나아간다.

부총장의 인사가 끝나자 대학관계자가 '우토리오'라고 부르는 숄처럼 길고 화려한 천을 인도방문단의 목에 걸어주었다. 최고의 빈객을 맞이하는 이 의식도 타고르가 처음 시작했다고 한다.

또 타고르의 사진과 친필 시, 사본 등 진심 어린 기념품도 일행에게 증정했다.

신이치 일행은 굽타 부총장의 인사에 고마움을 표한 뒤,

조촐한 이번 도서 증정을 기점으로 하여 대하처럼 도도히 흐르는 교육· 학술교류의 흐름을 만들고 싶다는 결의를 전했다. 그리고 기증도서의 일부와 100권의 도서 목록, 기념품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강당에서 일행을 환영하는 민족무용 등의 공연이 열렸다. 학생과 교수가 하나가 되어 준비한 공연이었다.

— 자연을 축복하는 타고르의 시가 흐른다. 타고르가 창작한 우아한 '타고르 춤'이 있고, 전통악기 시타르의 선율도 있다. 전통극 '용감한 사냥꾼'에서는 우주에 내제하는 악과 맞서 싸우며 격투하는 모습을 표현하듯, 청년이 힘차게 춤춘다 ….

타고르의 시는 인도 민중의 혼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했다. 사람들의 희로애락은 타고르라는 지성의 빛을 얻어 보편적 예술로 승화되고, '영원한 것'과 융합되었다.

고뇌하는 한 사람을 향한 시성(詩聖)의 철저한 사랑은 벵골을 향한, 인도 전체를 향한, 나아가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의 빛이 되어 세계를 비췄다.

때로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이 무대는 위대한 ‘문화의 거장’을 계승하는 대학에 걸맞은, 훌륭한 종합예술이었다. 열연하는 학생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부총장과 노교수들의 모습에서 훈훈한 인간애를 느꼈다.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 속에 신이치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 뒤,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은 라빈드라바라티대학교와 이별을 고했다.

소카대학교 창립자이기도 한 신이치의 이번 방문으로 소카대학교와 라빈드라바라티대학교의 교류의 길이 열렸다. 신이치는 우호의 묘목을 정성껏, 소중히, 끈기 있게 키웠다.

이때 방문으로부터 사반세기 뒤인 2004년 2월, 라빈드라바라티대학교는 신이치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또 학위 수여를 위해 일본에 온 바라티 무카지 부총장과 대담집 《새로운 지구문명의 노래를 — 타고르와 세계시민을 말한다》를 출간한다.

한걸음 한걸음 한결같은 교류가 쌓여 신뢰와 우정의 꽃을 피우게 한다.

“자, 오늘도 길을 엽시다! 우호의 다리를 놓읍시다!”

2월 15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고 숙소인 호텔에서 캘커타 교외의 나렌드라푸르에 있는 ‘라마크리슈나 미션’으로 갔다. 남학생만 있는 이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일관교육을 하고 있으며,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교내에는 교사(校舍), 운동장, 각종 농장, 양계장, 기능훈련소, 운동장 등이 있고, 그 주위를 녹음이 아름답게 감싸고 있었다.

“지식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기술도 가르쳐 ‘조화’를 이룬 인간교육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안내를 맡은 사람이 말했다.

일행은 캠퍼스를 둘러본 뒤,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했다. 한 반에 25명으로, 벵골어 수업을 하고 있었다. 신이치가 교사에게 “잠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라고 허락을 구하고, 교실 가운데 빈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요?”라고 묻자, 눈동자를 빛내며 의사나 교사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 말속에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가득했다.

‘이기주의의 껍질을 깨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자.’ — 이 자각과 사명감을 기르는 일이 인간교육의 중요한 핵심이다.

신이치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몸을 단련해 인도를 짊어질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어서 회의실에서 교사를 비롯한 학생들과 간담했다. 신이치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창가학회 초대 회장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선생님도 교육자이셨습니다. 학교가 실생활에서 동떨어져 학습에만 편중되는 것을 우려해, 지금으로부터 70년도 넘는 오랜 옛날에 ‘반일학교제도(半日學校制度)’를 개혁안으로 제창하셨습니다. 그것은 귀 학원이 지향하는 교육방식과도 일치합니다.”

교사들은 그 선견성에 경탄하는 표정이었다. 창가교육은 세계라는 무대에 나갈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

신이치 일행은 시각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부속학교도 방문했다. 자신도 눈이 불편한 교장이 온화하게 웃으며 신이치와 악수를 나누고 실습장으로 안내했다. 학생들은 손으로 더듬으며 볼트를 너트에 끼우는 등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 모습을 보며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 그 자체가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기술을 익혀 사회에서 활약하게 된다면, 눈이 불편한 사람

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견학을 마치자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생대표가 배웅하러 나왔다. 신이치가 한 학생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불편한 눈으로 살아가려면 남들보다 배로 노력해야 하고, 고생도 많겠지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최고로 숭고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위대한 인생을 꿋꿋이 걸어가기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합니다. 실은 누구나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자신이 어떻게 희망을 만들고 용감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해낸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승자입니다.”

학생이 신이치 쪽으로 얼굴을 들고는 통역이 전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이겨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졌을 때 불행해집니다. 나는 여러분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신이치는 어떻게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용기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고 나서 교장의 손을 꼭 잡으며 힘주어 말했다.

“이 학생들은 세계의 보배입니다. 인도에서 희망의 별이 될 것입니다. 인생승리의 영관(榮冠)을 쓸 사람으로 육성

해 사회로 보내주십시오.”

“꼭,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손을 힘차게 흔드는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15일 오후 3시 30분, 방문단 일행은 캘커타에 있는 인도박물관을 방문했다.

박물관에는 기원 전 3세기 마우리아왕조의 아소카왕이 세운 돌기둥의 머리부분인 ‘네마리 사자상’이 눈길을 끌었다. 사자상의 대좌에는 수레바퀴 모양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법륜(法輪)’이라고 하는데, 석존이 설한 가르침 다시 말해 ‘교법(敎法)’이 악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저절로 굴러가 외적을 물리치고 사방을 제압하는 전륜성왕의 윤보(輪寶, 수레바퀴 모양의 보배)를 본따 도안된 법륜은 불교의 진리와 정의를 바탕으로 세상을 다스린 아소카 왕을 상징하며, 인도 국기에도 ‘법륜’이 들어가 있다.

전시는 선사문명을 시작으로 인도의 풍부한 문명을 장대한 규모로 소개했다.

견학을 끝낸 일행은 박물관 사무실로 안내를 받았다. 일반인에게는 비공개인 기원전 4세기경의 진신사리(眞身舍利: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사리)항아리를 특별히 보여주었다. 고대 인도문자로 부처의 사리가 들어 있다고 새겨져 있는 항아리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한다.

박물관 전시품을 감상한 야마모토 신이치는 불교성쇠의 역사를 떠올렸다.

'석존이 설한 영원한 생명의 법은 아소카왕의 치세에 평화로운 월광을 비추고, 자비를 근저로 한 사회를 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말법탁세의 먹구름에 달은 지고 말았다. 그때 일본에 니치렌불법의 태양이 떠올라, 말법의 어둠을 거두는 여명의 빛을 발산했다. 그리고 지금 창가동지(創價同志)의 분투로 일곱 개의 종이 드높이 울려퍼지고, 동쪽 하늘에 붉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다. 세계광선유포라는 신생의 아침이다! 세계에 입정안국(立正安國)을 실현해, 인류가 처한 온갖 위기를 이겨내고 항구평화와 번영의 길을 구축하는 새로운 불법시대가 찾아왔다!'

신이치는 그 출발을 위해 더욱더 세계 각지에 새로운 광포의 원류를 열겠노라고 결의했다. 이번 방문으로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 한 줄기 흐름을 만들 수 있었다. 그 보배와 같은 한방울 한방울을 소중히 하고, 온 힘을 다해 지키겠노라고 마음속 깊이 굳게 맹세했다.

인도를 출발하는 16일, 신이치는 캘커타에서 일본으로 전

보를 보냈다. 오키나와현 구메섬과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에히메현 나카지마섬 그리고 히로시마현 이쓰쿠시마섬 등의 낙도를 비롯해, 각지에서 고투하며 광포의 길을 개척하는 동지에게 보내는 전보였다.

“아시아광포의 길이 열렸다. 섬 여러분에게 안부 부탁. 캘커타. 야마모토 신이치.”

광선유포의 무대가 세계로 넓혀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 어딘가에 있는 광포의 이상향을 좇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 마을, 섬, 촌락에서 꾸준히 불법대화를 펼치고 신뢰를 넓혀 광포를 확대해야 비로소 세계광선유포이다.

날마다 사람들의 행복과 지역의 번영을 바라며 격려와 홍교에 묵묵히 분투하는 사람이야말로 세계광포의 선구자이다. 신이치는 그러한 동지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었다.

이날 오후 4시, 인도방문단 일행은 귀국 길에 오르기 위해 캘커타 공항에서 ICCR 관계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홍콩으로 출발했다.

날아오르는 비행기에서 밖을 바라보니 갠지스강의 지류가 녹색 대지를 적시며 벵골만(灣)으로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물이 한방울 한방울 모여 원류가 되고, 그 원류가 유구한

대하(大河)를 만든다.

신이치는 인도 동지가 세계광선유포의 위대한 원류가 되기를 기원하며, 마음속으로 열심히 제목을 보냈다.

그 뒤, 인도SGI는 1986년에 법인등록을 했다. 1989년에는 인도문화회관을 개관하고, 1993년에는 창가보리수원을 개원해 불법서환(佛法西還)의 깊은 뜻을 새겼다.

신이치도 1992년과 1997년에 인도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격려했다.

그 속에서 인도 멤버는 오로지 발전의 초석을 굳건히 쌓는데 힘을 쏟았다. 한사람 한사람이 신심의 용자(勇者)가 되고,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둥이 되어 모범적인 인간공화의 조직을 만들면서 21세기를 목표로 나아갔다.

견고한 기반 없이는 영원한 창가의 대성(大城)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SGI가 염원하던 멤버 1만명을 달성하고 광포의 초석을 반석과 같이 구축한 때는,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행진을 개시한 2002년 8월이었다. 그 뒤로 파죽지세로 광선유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12년 뒤인 2014년 3월에는 멤버가 그 일곱배인 7만명을 돌파했다.

광선유포를 자신의 사명으로 하여 스스로 홍교에 힘쓴 동지의 흉중에는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약동하고, 사자와 같은 투혼이 맹렬히 불타올랐다. 인도의 모든 지구(地區)에 환희의 큰 파도가 일고, 공덕의 체험이 만발했다.

그것은 광포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다. 멤버 10만명 달성을 내걸고 노도와 같은 기세로 대전진을 개시했다.

홍교는 홍교를 넓히고 환희는 환희를 불러, 이듬해 2015년 8월 1일에는 10만 지용보살이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 멋지게 탄생했다. 지용의 대행진은 멈출 줄 몰랐다. 석달 뒤인 창가학회 창립 85주년 기념일인 11월 18일에는 11만 1111명이라는 금자탑을 우뚝 세웠다.

그리고 10만명을 달성하고 1년 뒤인 2016년 8월 1일, 놀랍게도 15만명이라는 진열을 갖춘다. 게다가 15만명 중에 약 절반이 차세대 리더가 될 청년부와 미래부이다.

그해 8월, 일본을 방문한 대표 200명이 시나노마치에 있는 ‘광선유포(廣宣流布) 대서원(大誓願)의 전당(典當)에 모였다. 세계광포를 서원하는 창제소리가 드높이 울려퍼졌다.

인도의 땅에서 세계광포 신시대의 대원류(大源流)가 개가를 올리며 솟구쳐 흘렀다.

아니 아시아 각지에서, 아프리카에서, 북남미에서, 유럽에서, 오세아니아에서 새로운 원류가 탄생해 약동의 물보라를 일으켜 골짜기를 깎아내면서 일사천리로 달리기 시

작했다. 우리 창가동지는, 니치렌 대성인이 말씀하신 '지용의 의(義)'를 증명해냈다.

흐름의 저편, 세계광포의 대하(大河)가 펼쳐지고, 매마른 인류의 대지는 행복의 꽃향기 가득한 평화로운 옥야가 된다.

그리고 환희 가득한 민중의 교향악이 하늘에 울려퍼지고, 우정의 스크럼이 물결친다.

(제29권 끝)

어구해설

<상략>

28 **야부사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세개의 과녁에 순서대로 적시(鏑矢)를 소는 것을 말한다. 야부사메는 가마쿠라시대의 무예로서 한창 유행했다.

28 **정소대(政所代)** ‘정소’는 귀족의 영지에 관한 사무 및 집안일을 다루던 정무기관이고 ‘정소대’는 그곳의 관리.

30 **제육천마왕(第六天魔王)** 욕망의 세계인 ‘욕계(欲界)’에 속하는 여섯개의 천(육욕천) 중 최상의 천(제육천)에 살고 있다는 마왕.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이라고 하며, 정법(正法)을 적대하고 성불을 방해하는 ‘마’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다.

30 **헤이노 사에몬노조 요리쓰나** 생년 미상~1239년. 가마쿠라시대의 무장. 호조가(北條家)의 유력한 가신으로서 경찰권력을 장악하여 막부정치에서 권세를 자랑했다. 니치렌 대성인과 문하를 박해한 장본인. 다쓰노구치법난, 사도유죄에 깊이 관여하고, 아쓰하라법난에서도 농민신도를 탄압했다.
한때 집권을 능가할 정도의 위세를 자랑했지만 반역죄로 단죄되어 일족이 멸망했다.

60 **시타마치(下町)·야마노테(山手)** 도쿄에는 시나가와구(區)· 미나토구와 같이 지대가 높은 ‘야마노테’지역과 다이토쿠와 같이 지대가 낮은 ‘시타마치’지역이 있다. 에도시대부터 야마노테지역에는 무사의 저택이, 시타마치지역에는 서민의 생활공간이 발달했다.

71 **재재제불토(在在諸佛土) 상여사구생(常與師俱生)** 법화경 화성유품 제7의 문(文). ‘곳곳의 모든 불국토에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나느니라.’라는 뜻이다. ‘사제의 관계는 금세뿐 아니라 삼세에 걸친다.’는 뜻이다.

99 **대륜국화와 현애국화** ‘대륜국화’는 꽃의 지름이 18센티미터 이상인 국화이고, ‘현애국화’는 벼랑에 붙어서 자라는 소나무의 모습을 본떠 만든 국화이다.

103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 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 ‘번뇌즉보리’의 ‘번뇌’는, 중생의 신심을 괴롭혀 고뇌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신작용을 말한다. 소승교는 ‘번뇌는 고뇌를 초래하는 인(因)이며, 그것을 단멸(斷滅)했을 때 보살이다 된다.’고 설하지만, 법화경은 ‘번뇌를 일으키는 생명속에 보살이 있다.’고 설했으며, 그대로 깨달음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생사즉열반’의 ‘생사’는 번뇌· 미혹의 경애이고, ‘열반’은 보리· 깨달음의 경지를 말한다.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와 같다.

<역주>

160 **색지(色紙)** 와카(和歌)· 하이쿠(俳句) 등의 시를 쓰기 위

한 두꺼운 종이. 여러 가지 빛깔이나 무늬가 있는데, 후세에는 종이의 크기도 일정해졌다.

165 **불의불칙(佛意佛勅)** ‘불의’는 부처의 참뜻, 마음· 깨달음· 관심(觀心)을 말하고, ‘불칙’은 ‘부처의 칙령’이라는 뜻이다. ‘칙’은 천자(天子)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부처를 천자에 비유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223 이와사키 야타로·고토 쇼지로 이와사키 야타로(1835~1885년)는 도사 출신의 실업가로서 미쓰비시그룹의 창업자이다. 고토 쇼지로(1838~1897년)는 도사의 번사(藩士)· 정치가이다. 대정봉환운동(大政奉還運動)을 추진하고, 훗날 체신대신(遞信大臣)· 농상무대신(農商務大臣)을 역임한다.

225 **보불전쟁** 170~1871년.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벌인 전쟁을 말한다. 프로이센이 승리한 뒤, 독일제국이 탄생한다.

<청신>

272 **변독위약(變毒爲藥)** ‘독을 약으로 한다.’는 뜻으로, 괴로운 생명(독)이 그대로 행복의 생명(약)으로 전환되는 ‘묘법의 대공력(大功力)’을 나타내는 말.

311 **가지기도(加持祈禱)** 부처의 힘을 빌려서 병· 재난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올리는 기도.

314 **억겁(億劫)의 신로(辛勞)를 거듭하면서** 무한하게 오랜 시간 동안의 고생과 노고를 이르는 말. 여기에서는 한순간의 생명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의 쓰라린 고생과 노고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329 **예수·마호메트** 예수(기원전 4년~기원후 30년)는 기독교의 창시자이고, 마호메트는(570~632년)는 이슬람교의 개조(開祖). 아라비아어로 무함마드라고 한다.

330 **마르크스·리카도·칸트·천태대사** 마르크스(1818~1883년)는 독일의 경제학자· 사상가이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이다. 《자본론(資本論)》을 저술했다. 리카도(1772~183년)는 영국의 경제학자이고, 노동가치설 등을 전개한 고전학파의 대표자이다. 칸트(1724~1804년)는 독일의 철학자이고, 비판철학을 제창했다. 천태대사(538~597년)는 중국 천태종의 실질적인 개조. 법화경의 ‘이(理)의 일념삼천(一念三千)’을 밝혔다.

<원류>

368 **상현(上弦)** 음력 매달 7~8일경에 나타나는 달의 형태. 둥근 쪽이 아래로 향한다.

445 **용수(龍樹) 천친(天親) 등, 천태(天台) 묘락(妙樂) 등** 용수는 2~3세기에 남인도에서 활약한 대승불교의 논사. 천

친은 세친(世親)이라고도 부르며, 4~5세기경 북인도의 학승으로 대승의 논사이다. 천태(538~597년)는 중국 천태종의 실질적인 개조. 법화경 이(理)의 일념삼천의 법문을 밝혔다. 묘락(711~782년)은 중국 당대의 천태종 중흥의 조(祖). 저서에 천태의 《법화삼대부 주석서》 등이 있다.